

梁山法基里 出土 鳥形容器*

愼 仁 珠

Shin, Injoo
東亞大學校 博物館 助教

1. 머리말

法基里遺蹟¹⁾은 慶南 梁山郡 東面 法基里 563번지에 위치하며 元曉山의 남쪽계곡에 자리잡고 있다. 1976년 당시 이곳에서 상수도 공사를 하던 중 지하에서 토기가 대량 발견되어 알려진 유적이다. 현지조사자의 보고에 의하면 遺構는 長方形 竪穴式石槨墓로 추정되며 유적 중심지에 마을이 들어서면서 대부분의 유구가 훼손되어 자세한 특징은 알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한다. 당시 이곳에서는 50여점에 달하는 遺物이 출토되었는데 그중 여기서 언급하고자 하는 鳥形容器도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鳥形容器²⁾란 동체는 새의 형태를 취하면서 등에는 注入口, 꼬리부분에는 대체로 둥글게 뚫린 注出口를 가진 토기를 의미한다. 이러한 조형용기는 종래 異形土器의 한 종류로 인식되면서, 주로 硬質土器에 국한하여 연구되어온 경향이었다.³⁾ 뿐만 아니라 출토지가 명확하지 않은 자료가 대부분이어서 시기적인 차이나 지역적인 분포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 남부지역의 활발한 발굴성과에 힘입어 출토지를 알 수 있는 자료의 증가와 함께 軟質土器에 대한 연구⁴⁾도 이루어지면서 이 방면에 대한 새로운 연구분석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이 논문은 재단법인 동아시아문화연구학술재단의 1998년도 연구비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1) 沈奉謹, 「梁山法基里出土遺物」 『考古歷史學志』 創刊號, 1985

2) 水鳥形土器, 鴨形土器 등으로 불리워졌으나, 특히 頭部의 형태상 어떤 특징의 새라고 칭하기에는 모순되는 제요소로 인해 동체의 공통된 특징으로써 鳥形容器라 칭하고자 한다.

3) 金元龍, 「新羅鳥形土器小見」 『考古美術』 106・107, 韓國美術史學會, 1970

——, 「新羅伽倻動物形土器小考」 『韓國學報』 13, 1978

東 湖, 「古代朝鮮の祭祀遺物に關する一考察-異形土器をめぐって」 『國立歷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 7, 1985

4) 李賢珠, 「鴨形土器考-3~4세기를 중심으로」 『博物館研究論集』 4, 釜山廣域市立博物館, 1995

법기리유적 출토 조형용기에 대한 연구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과제로 삼게 되었으며, 특히 형태상으로 조형용기의 변천과정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것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조형용기의 전체적인 출토 현황과 아울러 그 변천과정 그리고 조형적 의미 등에 대해 파악해보고자 한다.

2. 유물의 특징

法基里 出土 鳥形容器(圖1·原色4)는 長方形 竪穴式石槨에서 燈蓋土器, 壺形土器, 高杯등과 함께 출토되었다. 이 조형용기는 먼저 점토로써 有臺盃를 제작한 후 태토가 건조되기 전에 구연부를 양쪽으로 눌러 胴體를 원통처럼 만들고, 한쪽에는 馬頭를 별도로 제작하여 붙인 다음 다른 한쪽에는 꼬리부분을 만들어 덮었다. 胴體의 上面 中間부분에는 장방형에 가까운 타원형의 구멍이 뚫려 있고, 약간 쳐든 듯한 꼬리부분에 역시 구멍을 뚫고 있다. 즉 中間부분의 구멍은 注入口로서, 꼬리부분의 구멍은 注出口로서 액체를 담아 따르는 데 사용한 용기로 짐작할 수 있다.

목은 새처럼 가늘지만 頭部의 面像은 馬頭와 유사하다. 약간 조잡한 듯한 面像은 칼때기 끝과 같은 원통의 둥근 시문구로 눌러서 눈과 코를 나타내고, 두 귀는 삼각형 점토로 눌러 붙였다. 짧고 두툼한 주둥이는 끝이 일부 파손되었으나 중간에 칼과 같은 예리한 도구로 찢려 약간 벌리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다. 頭部 頂上部에는 용도를 알 수 없는 깊이 1cm의 둥근 구멍이 있는데 동체 내부까지는 관통되고 있지 않다. 추측컨대 慶山林堂 5號墳 出土의 馬頭裝飾有蓋臺附鉢이나 金鈴塚 出土의 騎馬人物像土器 등에서와 같이 頭頂에 말갈기를 묶어 빨같이 돌기된 장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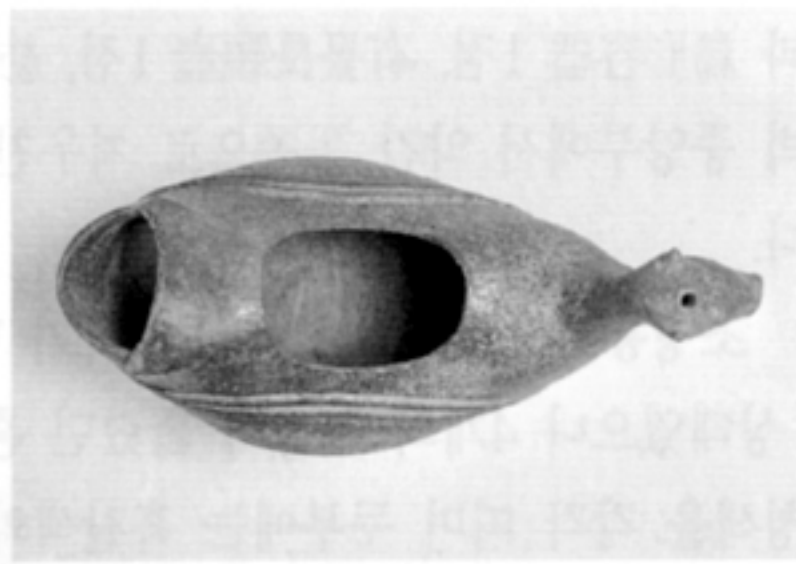
동체 중간에는 2조의 突帶文을 上下로 두르고 그 사이에 8조의 波狀集線文이 시문되어 있으며 脚部는 크기가 같지 않은 一段의 方形透窓 4개를 배치하고 있다. 胎土는 비교적 양호한 점토를 사용하고 기벽은 얇으며 소성도도 양호하다. 灰青色硬質土器이며 自然釉의 흔적이 군데군데 남아 있다. 高 22cm, 胴部幅 11.1cm, 胴部長 22.7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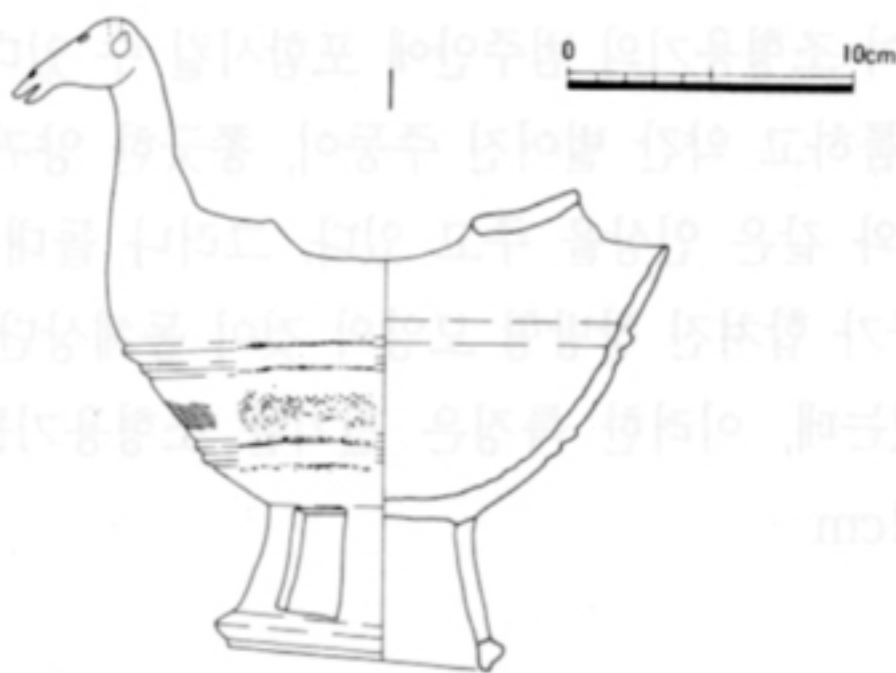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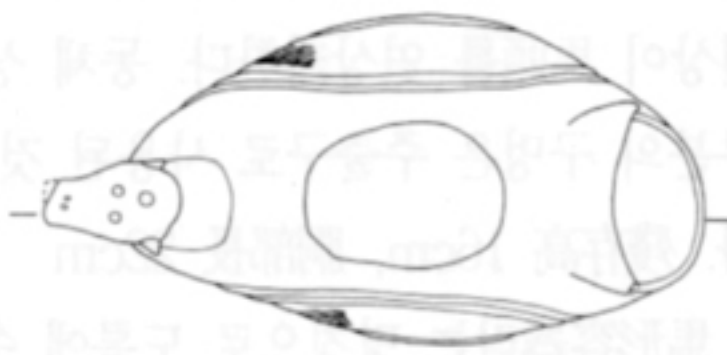
<측면>



<정면>



<상면>



<실측도>

<圖1> 梁山法基里 出土 鳥形容器

高 22cm, 胴部幅 11.1cm, 胴部長 22.7cm

이 鳥形容器의 가장 큰 특징은 頭部가 馬形이라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조형용기는 형태상 ‘새’라는 큰 범주안에 속해 있어 세부적인 형태를 무심코 간과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 법기리 출토 조형용기 뿐만 아니라 面像이 새가 아닌 말인 경우를 간혹 확인할 수 있다. 즉 尙州靑里 C地區 6號 出土品⁵⁾(圖2), 小倉 蒐集品⁶⁾(圖3)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먼저 尙州靑里 C地區 6號 出土品은 평면 장방형의 木槨墓에서 출토되었으나 내부의 木棺은 확인되지 않았다. 유물의 출토위치로 보아 길이 약 190cm의 木槨을 안치하고, 피장자의 머리와 발치쪽에 유물을 부장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즉 남단벽쪽에는 短頸壺 2점을 남쪽으로 배치하고 그 북쪽에 高杯 1점과 鳥形容器 1점, 有臺長頸壺 1점, 紡錘車 1점을 부장하고 있었다. 그리고 북단벽 중앙부에서 약간 동쪽으로 치우친 곳에 高杯 1점과 短頸壺 1점이 출토되었다.

조형용기는 남단벽쪽에서 頭部가 남쪽으로 향한 채 출토되고 각부가 훼손된 상태였으나 4개의 투창이 뚫렸던 흔적이 있다. 동부는 회백색, 꼬리부분은 회청색을 각각 띠며 두부에는 흑갈색의 자연유가 얇게 흡착되어 있다. 태토는 가는 모래가 혼입된 점토를 사용한 경질 소성이다. 面像을 보면 둥근 도구로 찰려 圓形의 눈을 만들고 방형의 주둥이는 위로 약간 휘어져 있는 형상이다. 귀는 단면 삼각형의 점토를 붙이고 측면에는 용도를 알 수 없는 원형 구멍이 뚫려 있는데 전체적인 인상이 馬頭를 연상케한다. 동체 상단에 장방형의 구멍을 뚫어 주입구로, 꼬리부분의 구멍은 주출구로 사용된 것 같고 동체에는 1~2조의 돌대가 둘러져 있다. 殘存高 16cm, 胴部長 22cm

다음 小倉 蒐集品은 馬形容器라는 명칭으로 도록에 수록되어 있는데 동체가 새와 유사하여 조형용기의 범주안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 경우 面像은 끝이 두툼하고 약간 벌어진 주둥이, 쫘긋한 양귀, 뽀족한 것으로 눌러 찍은 눈은 馬頭와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 그러나 돌대문이 둘러진 동체에는 주입구와 주출구가 합쳐진 장방형 모양의 것이 동체상단 중간부터 꼬리부분까지 관통되어 있는데, 이러한 특징은 전기한 조형용기들과 다른 점이다. 高 12.6cm, 長 13.1cm

5) 韓國文化財保護財團, 『尙州 靑里遺蹟(VII)』, 1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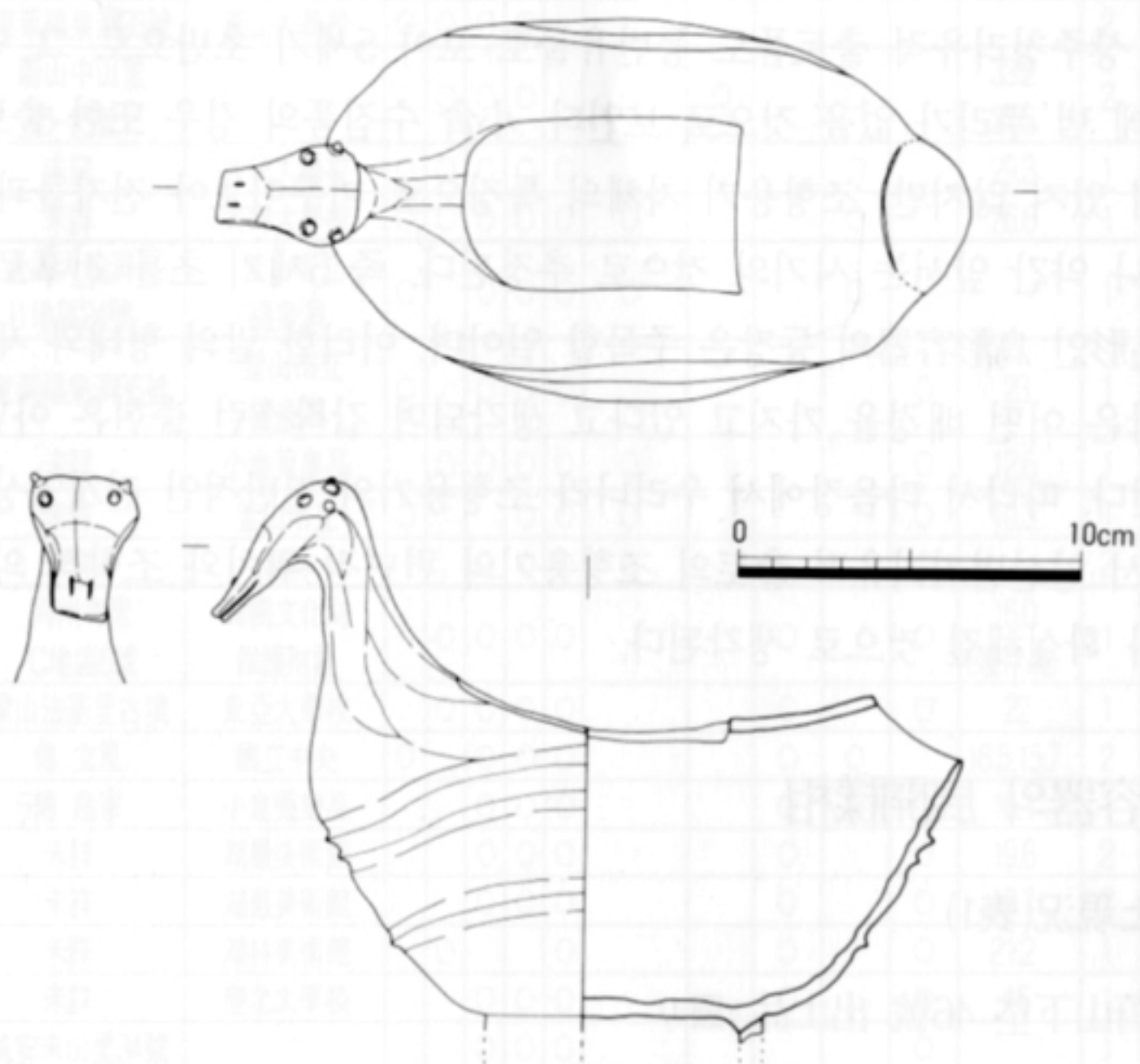
6) 東京國立博物館, 『寄贈小倉コレクション目録』, 昭和 57年



<측면>



<정면>



<실측도>

<圖2> 尙州靑里 C地區 6號墳 出土 鳥形容器
殘存高 16cm, 胴部長 22cm



<圖3> 小倉 蒐集 鳥形容器
高 12.6cm, 長 13.1cm

일반적으로 조형용기는 오리나 기러기와 같은 사실적인 새의 형상으로 여겨져왔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적인 鳥類는 주로 경질토기로 소성된 것이 대부분이며 대략 5세기 전반이후의 작품들에서 많이 보인다. 따라서 법기리유적 출토품이나 상주청리유적 출토품도 동반유물로 보아 5세기 초반으로 그 연대를 비정하는데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小倉 수집품의 경우 또한 출토상황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조형용기 자체의 특징으로 미루어보아 전자들과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앞서는 시기의 것으로 추정된다. 즉 5세기 초를 전후로 하여 頭部가 馬形인 鳥形容器의 등장은 주목할 일이며, 이러한 말의 형태와 새의 형태의 결합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며 갑작스런 출현은 아닐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다음장에서 우리나라 조형용기의 전반적인 전개양상을 살펴봄으로서 양산법기리유적 출토의 조형용기의 편년적 위치와 조형적 의미 파악이 보다 확실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3. 鳥形容器의 展開樣相

1. 出土現況(表1)

1) 蔚山下垈 46號 出土品⁷⁾(圖4)

국내 박물관의 소장품 가운데 하대유적 출토라고 전하는 것이 있지만 정식 발굴 조사에서 출토된 것은 한점뿐이다. 조형용기가 출토된 46호분은 하대유적

7) 安在浩, 「三國時代 後期 瓦質土器의 編年-下垈遺蹟을 中心으로」 『嶺南考古學』 14, 嶺南考古學會, 1994

의 유구규모와 내용면에서는 중형에 해당하는 목곽묘이다. 유구의 장축은 등고선과 평행하고 동반유물은 爐形土器, 有蓋臺附直口壺, 그리고 구슬 등이 있다.

<表1> 鳥形容器의 出土現況

圖版 番號	出土地	所藏處 (博物館)	頭部の 형태					脚部の 형태			燒成狀態		높이 (cm)	갯 수	비 고
			깃	귀	코	입	눈	무투창	투공	투창	연질	경질			
4	蔚山下垵46號	釜山大學校	○	○				○			○		18.3 (復元高)	1	
5	未詳	湖林美術館	○	○				○			○		18.7	1	
6	未詳	湖林美術館	○	○				○			○		44.4	2	
7	慶山林堂 E1-3號		○	○	○	○		○			○		29.4 (殘存高)	1	
8	未詳	國立晉州	○	○	○	○			○		○		33	1	
9	未詳	啓明大學校	○	○	○	○					○			1	頭部만 출토
10	未詳	啓明大學校	○	○	○	○		○			○		39.9	1	
11	大邱鳳舞洞		○	○	○	○					○			1	頭部만 출토
12	未詳	東國大學校	○	○	○	○		○			○		36.5 (復元高)	1	
13	未詳	國立慶州	○	○					○		○		34.4	1	
14	東萊福泉洞38號	釜山大學校	○	○	○	○								2	頭部만 출토
15	蔚山中山里 ID-15號		○	○	○	○		○	○		○		33.2 37.5	2	
16	未詳	大邱大學校	○	○	○	○	○		○		○		29.3	1	
17	未詳	大邱大學校	○	○	○	○	○	○			○		26.6	1	
18	金海大成洞 II地區24號	釜山市立 福泉洞	○		○	○	○	○			○			1	
19	東萊福泉洞86號	釜山市立 福泉洞	○		○	○	○					○	23	1	4개 다리로 脚部 구성
3	未詳	小倉蒐集品		○	○	○	○	○				○	12.6	1	馬頭
20	未詳	釜山市立	○			○	○	○				○	10.3	1	
21	未詳	湖林			○	○	○	○				○		2	
2	尙州青里 C地區6號	韓國文化財 保護財團		○	○	○	○			○		○	16.0 (殘存高)	1	馬頭, 脚部결실
1	梁山法基里古墳	東亞大學校		○	○	○	○			○		○	22	1	馬頭
22	傳 玄風	國立中央	○		○	○	○			○	○		16.5, 15.7	2	
23	傳 昌寧	小倉蒐集品			○	○	○			○		○	16.1	1	
24	未詳	湖巖美術館			○	○	○			○		○	19.6	2	
25	未詳	湖巖美術館			○	○	○			○		○	19.7	2	
26	未詳	湖林美術館		○			○			○		○	21.2	1	
27	未詳	慶北大學校			○	○	○			○		○	16	1	
28	咸安末山里34號				○	○	○					○		1	脚部 결실
29	傳 陝川	國立晉州			○	○	○			○		○	17.1	1	
30	金陵三盛洞	釜山市立			○	○	○			○		○	15.2	1	
31	未詳	梨花女子大	○		○	○	○			○		○	24.8	1	
32	未詳	東亞大學校			○	○	○			○		○	14.5	1	
33	未詳	嶺南大學校			○	○	○			○		○	21.5	1	
34	天馬塚				○	○	○							16	漆器



<圖4> 蔚山下垜 46號 出土
復元高 18.3cm



<圖5> 湖林美術館 所藏
高 18.7cm

조형용기는 유자이기, 철모 등의 방향으로 보아 발치쪽 부장간에 놓여 있었다. 器形은 깃의 앞부분이 결실되었으나 상당히 높은 깃으로 추정되며 주둥이는 아래를 향하다 끝이 위로 반전하는 날카로운 느낌을 준다. 그리고 頭部 양옆에는 단면 장방형의 점토에 둥근 구멍이 뚫린 귀가 붙어 있다. 그러나 입이나 코의 세부표현은 없고 주둥이 끝에서 동부에 이르는 선이 매우 유연한 곡선을 이루며 낮은 무투창 원통형 각부가 달려 있다. 등에는 짧은 직립구연의 注入口가 있고, 약간 치켜 올라간 꼬리부분에는 注出口가 있다. 復元高 18.3cm

2) 湖林美術館 所藏品⁸⁾(圖5)

깃과 주둥이는 동체에 비해 크고 꼬리 부분이 높게 치켜든 형태이다. 대체로 주둥이 부분이 아래를 향하다 위로 꺾이고 귀는 있지만 눈, 코, 입의 세부적인 표현은 없다. 전기한 울산하대 46호 출토품과 기형상 매우 유사한 것으로 미루어보아 울산하대 출토품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 高 18.7cm

3) 湖林美術館 所藏品⁹⁾(圖6)

이 두 조형용기는 깃, 주둥이의 모양, 각부와 주입구, 주출구 형태 및 제작기법이 매우 유사하므로 동일 분묘내의 출토품으로 보아도 될 것 같다. 깃은 정수리부분이 가장 높고 뒷목에서부터 점점 낮아지면서 축약되는 형상이며 주둥이 부분은 아래로 처지다가 끝이 위로 반전하여 날카로운 느낌을 준다. 귀는 목이 꺾이는 부분에 붙고 안면의 세부표현은 없다. 전체적으로 가늘고 긴 목에 주둥이와 깃을 크게 강조하고 목을 수직으로 곳곳이 세우며 꼬리부분은 치켜든 형태이다. 高 44.4cm

8) 湖林美術館, 『湖林美術館所藏品選集・土器』, 1985

9) 註8과 동일



<圖6> 湖林美術館 所藏 高 44.4cm

4) 慶山林堂 EI-3號 出土品¹⁰⁾(圖7)

단독의 대형목곽분이며 조형용기는 묘광의 南長壁을 따라 有蓋臺附直口壺, 軟質短頸壺, 軟質兩耳附壺, 爐形土器와 함께 출토되었다. 바닥을 깊이 7~10cm, 직경 10cm정도 파고 그 속에 각부를 고정시켜 부장한 점이 특징이다.



<圖7> 慶山林堂 EI-3號 出土

殘存高 29.4cm, 長 42.3cm, 脚部徑 12.9cm, 注入口徑 8cm

기형은 오른쪽 귀와 깃의 2/3정도가 결실되었으나 나머지 부분은 완형에 가깝다. 장방형의 두툽고 길게 뻗어나온 주둥이는 점토를 도려내어 입을 벌린

10) 鄭永和, 金龍星, 具滋奉, 張容碩, 『慶北 林堂地域 古墳群II』, 嶺南大學校博物館 韓國土地開發公社 慶北支社

형상으로 그 상단에 뚫린 2개의 鼻孔은 매우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주둥이에서 동부에 이르는 선은 울산하대 출토품에 비해 거의 직각이고 등에서 꼬리부분에 이르는 선은 수평에 가깝다. 주입구는 직립구연이며 구연단 가까이에 폭 1cm정도의 돌대문 1조를 희미하게 표현하고, 각부 끝에도 1조의 돌대를 돌렸다. 殘存高 29.4cm, 長 42.3cm, 脚部徑 12.9cm, 注入口徑 8cm

5) 國立晉州博物館 所藏品¹¹⁾(圖8)

울산하대유적 출토품이라고 전하는 압수문화제로 2점이 한쌍을 이루고 출토되었다고 한다. 각부와 깃은 일부 파손된 것을 복원한 것이며, 주둥이는 장방형으로 짧고 그 끝에서 동부로 이어지는 선은 수직의 각도를 이룬다. 목은 동체에 비해 가늘고 긴 편이지만 머리위에 크게 솟은 깃이 있어 전체적인 균형미를 나타내고 있다. 두부에는 침선으로 입과 코 그리고 양옆에 고리처럼 돌출된 귀를 만들었다. 각부에는 5개의 장방형 투공이 있으나 1개는 세선으로 표시된 형식적인 것이다. 동반유물은 대부호, 뚜껑, 양이부호가 있는데 양이부호의 소성상태가 경질에 가까운 점을 미루어 후기 연질토기의 일례라고 소개하고 있다. 高 33cm, 長 29~31.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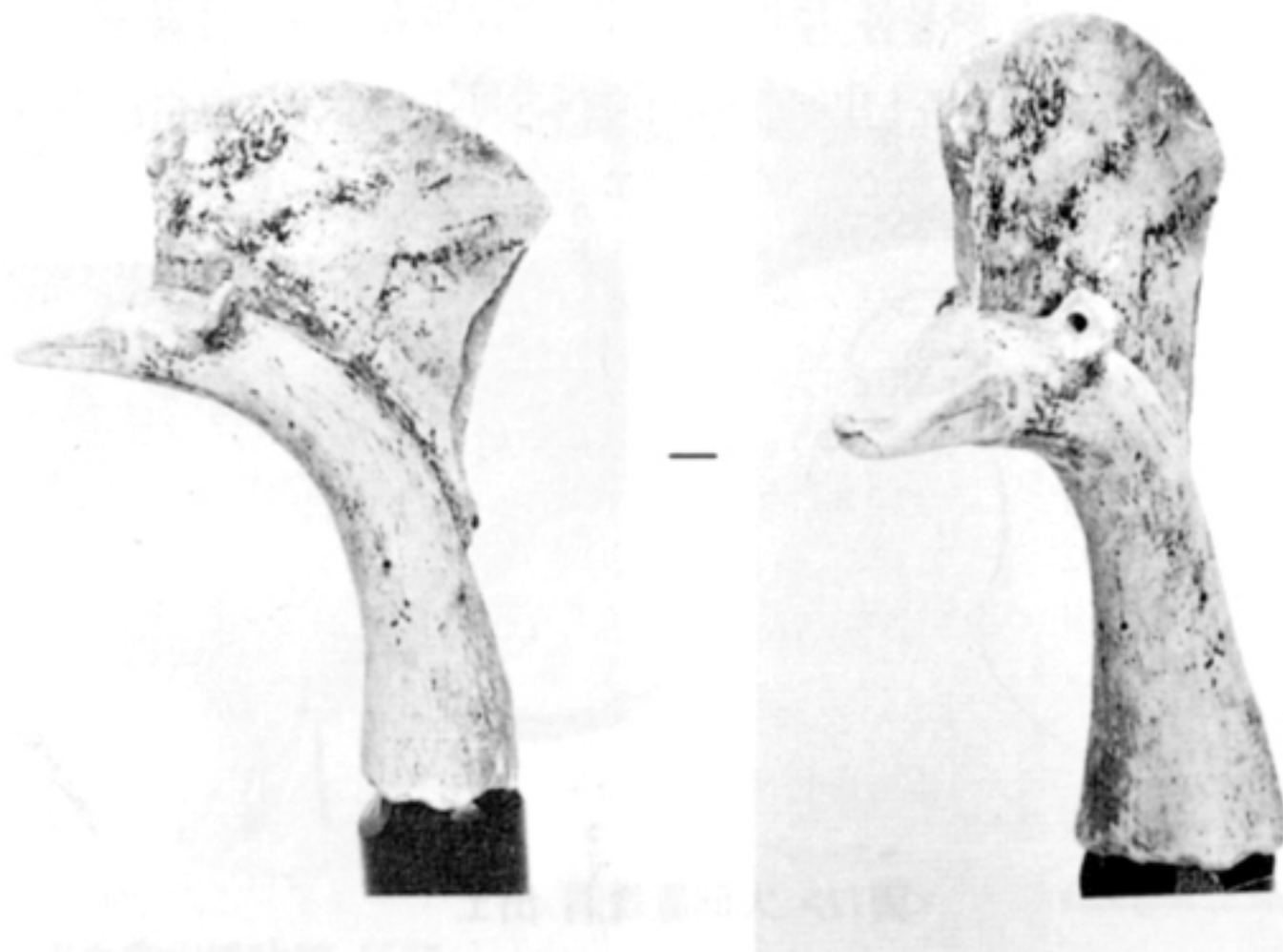
<圖8> 國立晉州博物館 所藏
高 33cm, 長 29~31.5cm

6) 啓明大學校博物館 所藏品¹²⁾(圖9·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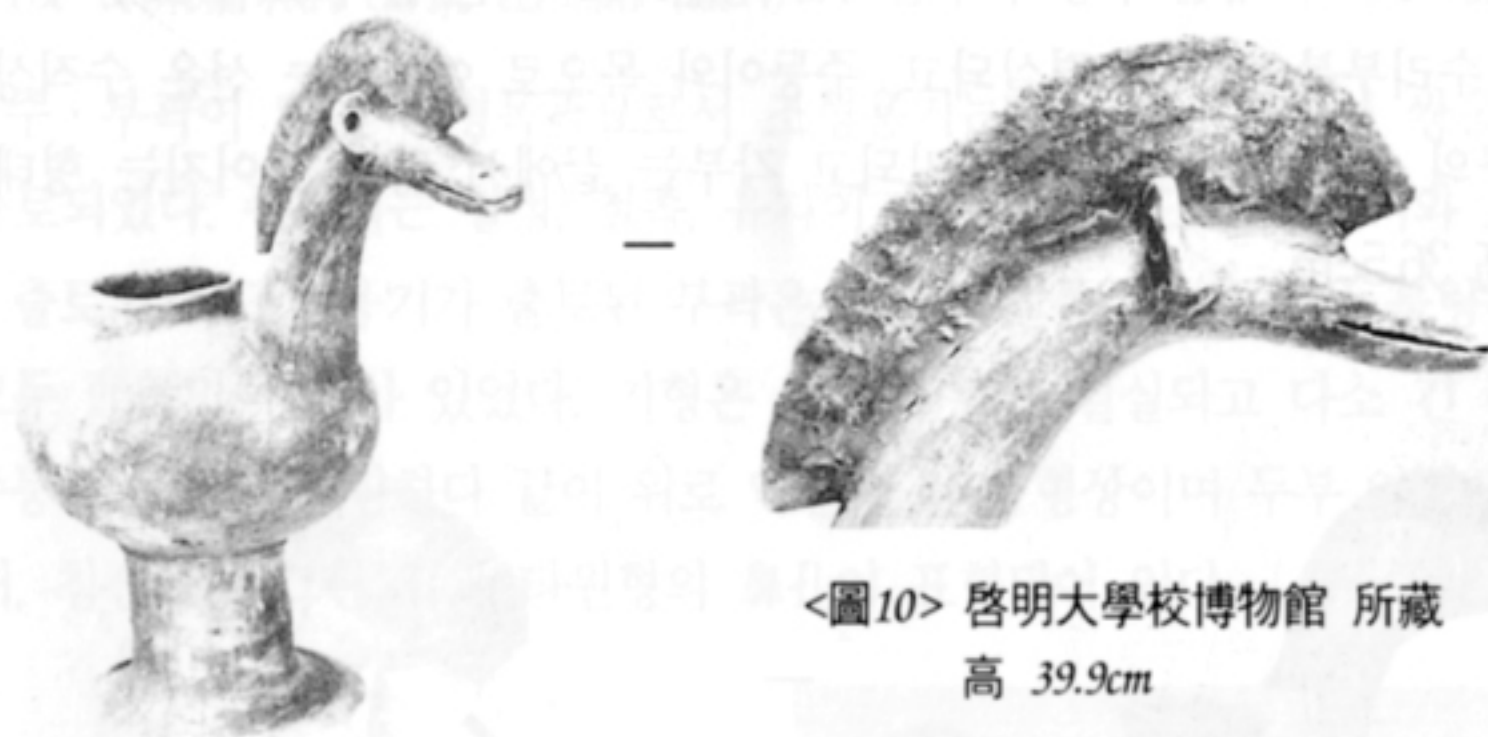
한점(圖9)은 頭部만 남아 있는 것으로서 목뒤에 큰 깃이 붙고 방형의 주둥이 부분에는 침선으로 입과 코를 표현하며, 두부 양쪽에 원공이 뚫린 원형 점토판의 귀가 부착되어 있다. 주둥이 끝에서 동부로 이어지는 선은 완만한 수직상을 이룬다.

11) 慶北大學校博物館, 『原三國時代文物展』, 1990

12) 註11과 동일



<圖9> 啓明大學校博物館 所藏



<圖10> 啓明大學校博物館 所藏
高 39.9cm

다른 한점(圖10)은 장방형의 주둥이가 앞으로 쪽 뺀 형태로서 양쪽 귀와 침선으로 그은 입, 코 등이 세부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주둥이 끝에서 동부로 이어지는 선은 수직 각도를 유지하고, 깃은 일정한 폭을 이루면서 목 뒤까지 내려와 있다. 주입구의 구연단은 두툼하게 처리되고, 원통형 각부는 끝에서 급격히 벌어지는 경향이다. 高 39.9cm

7) 大邱鳳舞洞遺蹟 出土品¹³⁾(圖11)

경북대학교 지표채집유물이며 頭部만 잔존하는 것이다. 방형의 주둥이 부분에는 침선으로 그린 선명한 코와 입이 표현되어 있고, 정수리부분의 깃은 결실되었으며 주둥이 끝에서 목으로 이어지는 선은 거의 수직상이다.

13) 註11과 동일



<圖11> 大邱鳳舞洞 出土

8) 東國大學校博物館 所藏品¹⁴⁾(圖12)

앞으로 쪽 내민 주둥이 부분에는 침선으로 그린 입과 코의 표현이 뚜렷하다. 정수리부분의 깃은 결실되고, 주둥이와 목으로 이어지는 선은 수직상이다. 주입구의 구연은 두툼하게 처리되고 각부는 끝에서 많이 벌어지는 형태이다. 復元高 36.5cm



<圖12> 東國大學校博物館 所藏
復元高 36.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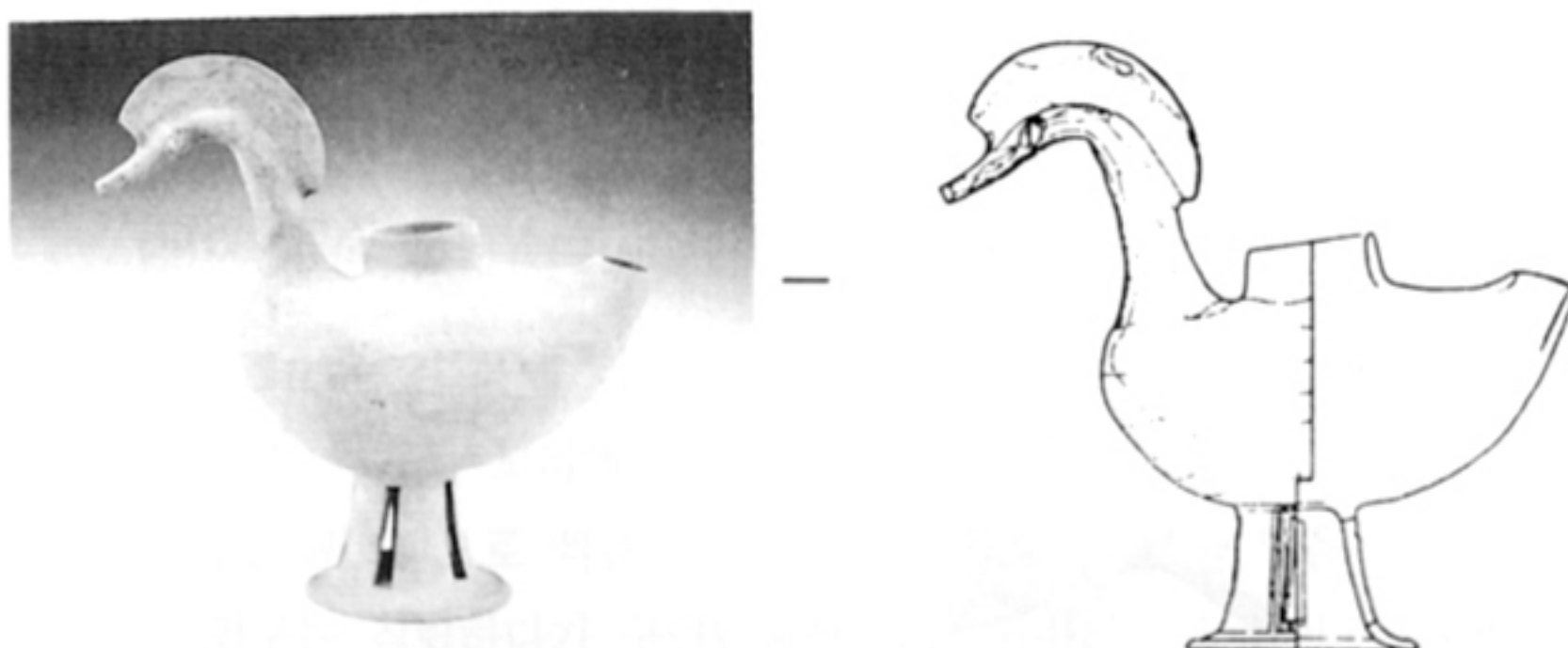
9) 國立慶州博物館 所藏品¹⁵⁾(圖13)

장방형의 주둥이는 직선적이고 두부의 깃은 주둥이에서 직각으로 꺾여 목 뒤까지 일정한 간격으로 이어지고 있다. 코, 입의 세부표현은 없으나 둥근 점토

14) 註11과 동일

15) 國立慶州博物館, 『菊隱李養濬蒐集文化財』, 19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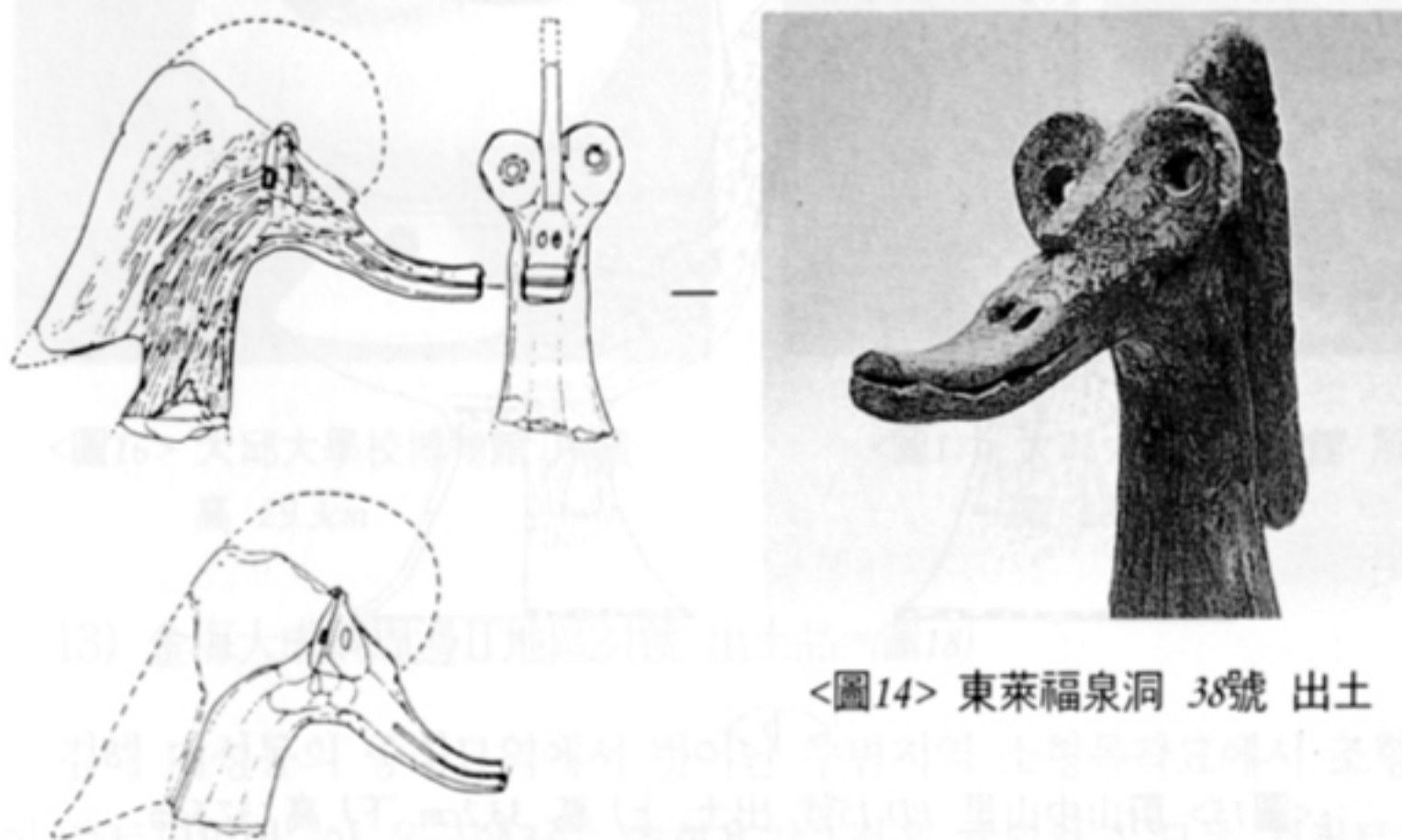
판에 구멍을 뚫은 귀는 표현되어 있고, 풍만한 몸통에 부착된 긴 각부에는 세장 방형 투공 5개를 배치하고 있다. 慶州校洞 出土品이라고 전한다. 高 34.4cm



<圖13> 國立慶州博物館 所藏
高 34.4cm

10) 東萊福泉洞 38號 出土品¹⁶⁾(圖14)

주·부곽이 있는 대형목곽묘로서 조형용기는 부곽에서 2점이 쌍을 이루며 출토되었다. 주곽에는 철정, 철촉, 유자이기, 판갑, 대도, 통형동기와 토기류 등이 출토되고, 조형용기가 출토된 부곽은 유구의 잔존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2점 모두 頭部만이 남아 있었다. 기형은 깃의 일부가 결실되고 다소 긴 장방형의 주둥이는 아래로 향하다 끝이 위로 약간 올라간 형상이며 두부 양옆에 부착된 귀, 침선으로 그린 입과 타원형의 鼻孔이 표현되어 있다.



<圖14> 東萊福泉洞 38號 出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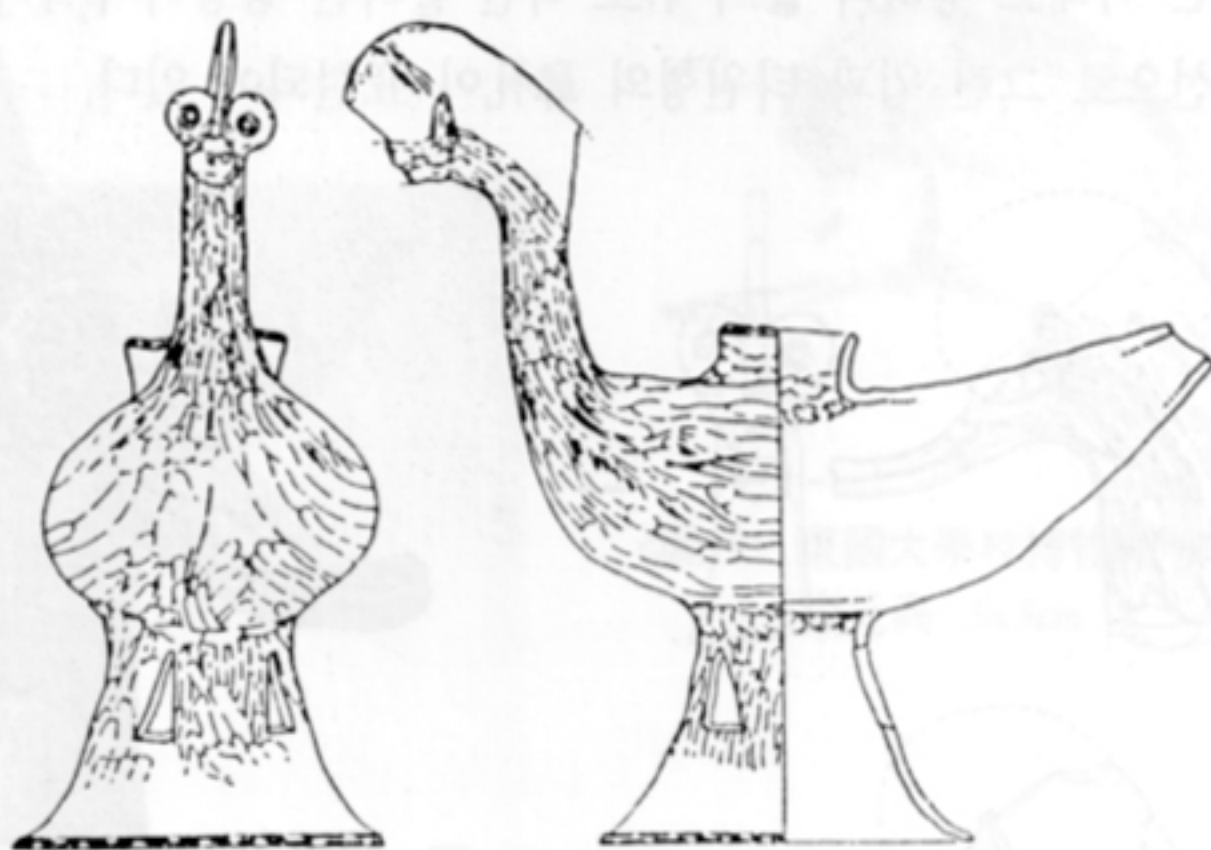
16) 정징원·안재호, 「북천동 38호분과 그 부장유물」 『三佛金元龍停年退任記念論叢』, 一志社, 1987

11) 蔚山中山里 ID-15號 出土品¹⁷⁾(圖15)

主·副槨을 가진 목곽묘로서 細長한 묘곽에 격벽을 설치하여 주·부곽으로 삼고 있다. 주곽은 매우 세장한 반면 부곽은 방형에 가까우며 토기만 부장하고 있다. 즉 주곽에는 有刺利器, 회청색경질 단경호와 60cm이상되는 鐵矛가 무더기로 포개어져 있었고, 부곽에는 爐形土器, 小形圓底短頸壺, 長卵形의 甕과 함께 조형용기 2점이 쌍으로 머리를 마주보고 있는 상태로 출토되었다.



<上>



<下>

<圖15> 蔚山中山里 ID-15號 出土 上) 高 33.2cm 下) 高 37.5cm

17) 李盛周, 「洛東江東岸樣式土器에 대하여」 『제2회 영남고고학회학술발표회 발표 및 토론회』, 영남고고학회, 1994

두점 모두 전체적인 특징은 동일하지만 주입구의 구연과 각부 형태 등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다. 특히 큰 것은 각부가 長脚으로 끝이 쪽 뻗고 삼각형 투공 4개를 배치하고 있다. 깃과 주둥이의 일부가 결실되었으나 경부를 거쳐 동부에 이르는 선은 수직에 가깝고, 꼬리는 약간 쳐들었지만 수평에 가깝다. 高 33.2, 37.5cm

12) 大邱大學校博物館 所藏品¹⁸⁾(圖16・17)

한점(圖16)은 긴 목에 직선상으로 뻗은 주둥이는 예각을 이루다가 꺾어지는 형상이고, 등에서 꼬리에 이르는 선은 수평에 가깝다. 두부에는 점토판에 圓孔이 뚫린 귀, 점으로 찍은 눈과 코, 침선으로 홈을 판 입을 각각 표현하고 있다. 주입구는 직립하다가 구연단에서 약간 외반하는 느낌이고, 나팔형 각부에는 2조의 침선과 돌대가 둘러지고 그 중간에 圓孔이 있다. 高 29.3cm

다른 한점(圖17)은 동체에 비해 목이 상대적으로 매우 길다는 인상을 주며, 주둥이 부분의 끝은 반전하는 형상이고 눈, 코, 귀는 세부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다른 조형용기와는 달리 鋸齒狀의 깃과 둥근 점토를 붙여 만든 눈이 특이하다. 高 26.6cm



<圖16> 大邱大學校博物館 所藏
高 29.3cm



<圖17> 大邱大學校博物館 所藏
高 26.6cm

13) 金海大成洞周邊Ⅱ地區24號 出土品¹⁹⁾(圖18)

김해 대성동의 중심묘역에서 벗어난 주변지역 소형목곽묘에서 조형용기 1점이 출토되었다. 이 유구에서는 조형용기 1점을 제외하고 모두 경질토기만 출

18) 大邱大學校博物館, 『大邱大學校博物館圖錄』, 1991

19) 金海市, 『金海의 古墳文化』, 1998

토되었다. 조형토기는 회황색 연질토기이며 앞의 예와는 달리 깃의 표현이 매우 소략해지고 두부 양쪽의 귀도 없어졌다. 짧은 주둥이에는 눈과 코가 있고, 주둥이 끝과 깃부분에는 침선으로 빗금을 긋고 있다. 전체적으로 두부가 작아진데 비해 동체는 풍만한 형상이고 주입구는 다소 큰 편이다.



<圖18> 金海大成洞 周邊 II地區 24號 出土

14) 東萊 福泉洞 86號 出土品²⁰⁾(圖19)

이 유구는 유물의 부장상태로 보아 전기한 복천동 38호분과 같이 부곽에서 출토되었다. 이 조형용기는 경질토기로 매우 퇴화된 깃을 가지고 있으며 두부와 목 뒤쪽에 점토를 손끝으로 눌러 세워 흔적만 나타내고 있다. 짧은 주둥이는 입을 벌린 상태이고 뾰족한 도구로 찔러서 눈을 새기고 있다. 전체적으로 풍만한 몸통에 비해 머리는 작고 목이 짧으며 고개를 숙인 형태이다. 특히 다른 조형토기가 원통형 각부가 부착된데 비해 별도로 제작된 짧은 다리 4개가 있고, 동부에는 새의 깃털을 표현하기 위해 종방향의 침선문을 시문하고 있다. 高 23cm

15) 釜山市立博物館 所藏品²¹⁾(圖20)

출토지 미상이며, 머리깃은 점토를 눌러 만들고 장방형의 짧은 주둥이에는 침선으로 입을 긋고 점을 찍어 눈과 코, 그리고 사격자문과 침선으로 동부의 깃을 나타내고 있다. 다른 조형용기와는 달리 점토를 눌러 꼬리깃을 표현하고 몸통 좌측에 있는 직경 1.4cm의 둥근 구멍을 주출구로 사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高 10.3cm

20) 宋桂鉉, 洪潛植, 李海蓮, 「東萊福泉洞古墳群 第5次 發掘調査 概報」 『博物館研究論集』 3, 釜山廣域市立博物館, 1995

21) 釜山廣域市立博物館, 『소장유물』, 1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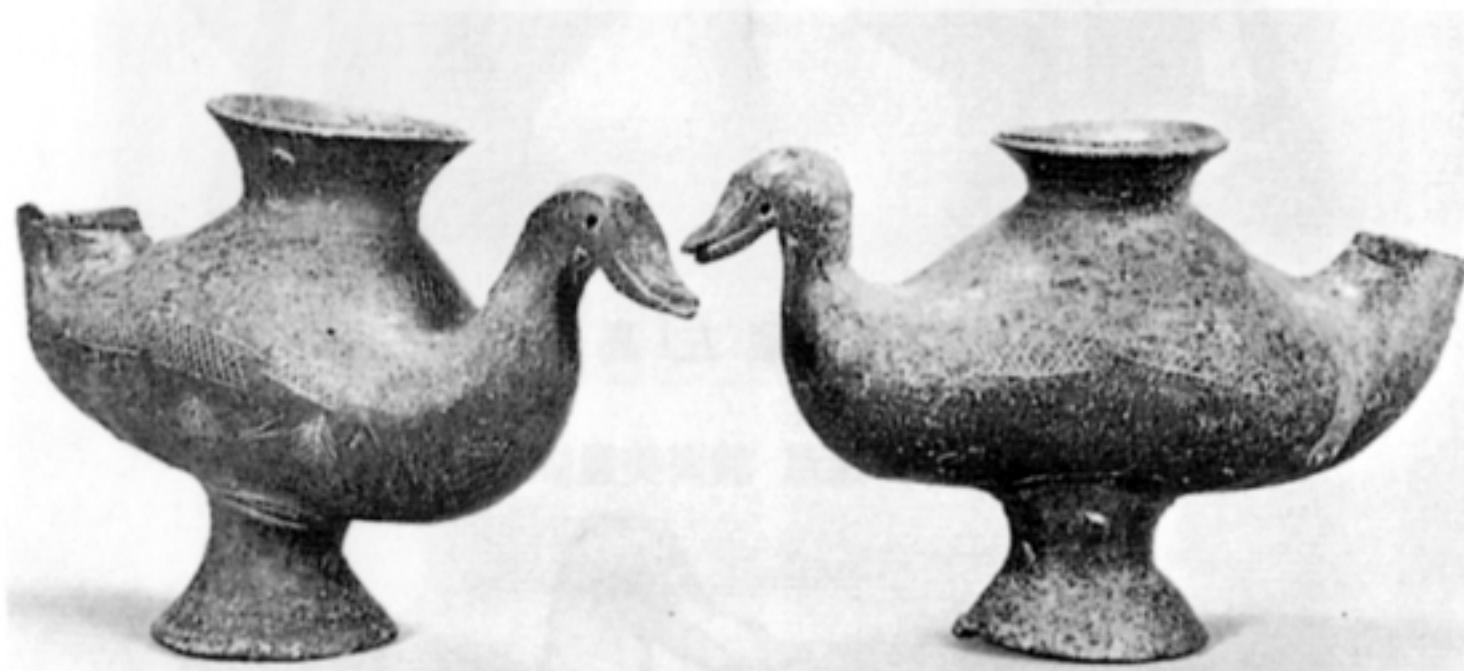
<圖19> 東萊福泉洞 86號 出土
高 23cm



<圖20> 釜山市立博物館 所藏
高 10.3cm

15) 湖林博物館 所藏品²²⁾(圖21)

두점이 매우 닮은 한쌍으로 높이에 비해 길이가 긴 편이다. 두부의 깃은 완전히 퇴화되고 정수리부분이 약간 꺾아내린 듯한 인상을 주며 눈, 코, 입이 표현되어 있다. 동체에는 침선으로 여러 가지 문양이 시문되고, 두부보다 높게 강조된 주입구는 외반된 형태이며 치켜든 꼬리에 주출구가 있다. 右)長 21.3cm



<圖21> 湖林博物館 所藏 右) 長 21.3cm

16) 國立中央博物館 所藏品²³⁾(圖22)

두점은 거의 유사한 조형용기로 같은 고분 출토품이라고 생각된다. 긴 장방형의 주둥이에는 코와 입, 둥근 점토의 중간에는 점을 찍은 눈과 깃을 각각 표현하고 있으나 소략하다. 전체적으로 고개를 숙이고 꼬리는 들어올린 형상이며, 목에는 둥근테를 두르고 있다. 등에는 비교적 높은 원통형의 주입구가 달

22) 國立中央博物館, 『韓國 古代의 土器』, 1997

23) 韓炳三, 『土器』 韓國의 美⑤, 中央日報, 1981

秦弘燮, 『鴨形土器二例』 『考古美術』 第四卷 第六號 通卷三十五號, 韓國美術史學會, 1963. 6

려 있으며, 동체 양쪽에는 점토판을 날개모양으로 붙이고 그위에 침선을 그어 날개깃을 나타내고 있다. 일단의 장방형투창 각부를 가진 것으로서 적갈색 연질토기이며 玄風출토라고 전한다. 高 16.5, 16.7cm

17) 小倉 蒐集品²⁴⁾(圖23)

이 조형용기는 고개를 뒤로 돌리고 입에는 생선을 물고 있는 해학적인 모습이다. 등에는 점토판의 날개가 마주붙고, 꼬리부분에 원형으로 뚫린 注口 하나를 가지고 있다. 注口밑에 꼬리깃과 다리가 표현되고, 끝이 나팔상으로 벌어지는 원통형 각부가 있다. 昌寧출토라고 전한다. 高 16.1cm, 長 14.3cm



<圖22> 國立中央博物館 所藏 左) 高 16.5cm 右) 高 16.7cm



<圖23> 小倉 蒐集 高 16.1cm, 長 14.3cm

24) 註6과 동일

18) 湖巖美術館 所藏品²⁵⁾(圖24・25)

한쌍(圖24)은 작은 頭部에 비해 풍만한 동체를 가진 것으로 돌대문과 침선문이 시문되고, 등 양쪽으로 점토판의 날개를 표현하고 있다. 특히 동부 아래에는 다리를 붙이고 등 위에 杯形으로 된 주입구를 배치하는 등 격조있는 조형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高 19.6cm

다른 한쌍(圖25)도 동체에 돌대문과 침선문이 수평하게 시문되고, 등 양쪽으로 점토판의 날개가 있는 것은 전자와 유사하다. 그러나 원통형으로 세워진 주입구가 높고 그 바깥에 한줄의 돌대를 두른 것은 차이점이며, 각부에는 장방형 투창이 1단으로 배치되어 있다. 高 19.7cm



<圖24> 湖巖美術館 所藏 高 19.6cm



<圖25> 湖巖美術館 所藏 高 19.7cm

25) 註22와 동일

19) 湖林美術館 所藏品²⁶⁾(圖26)

작은 머리는 전방으로 향하고 풍만한 동체에는 돌대가 있다. 점토판으로 따로 붙인 날개는 비상하는 형상으로 생동적이고 전진하는 느낌을 준다. 원통형 주입구는 상단이 크게 외반하고, 각부에는 장방형투창이 상하 이단으로 배치되어 있다. 高 21.2cm

20) 慶北大學校博物館 所藏品²⁷⁾(圖27)

목을 틀어 뒤로 돌려 무엇인가 중얼거리는 듯 입은 약간 벌린 형상이다. 동체에는 돌대문과 침선문이 시문되고 이단의 장방형투창을 가진 각부가 있다.



<圖26> 湖林美術館 所藏
高 21.2cm



<圖27> 慶北大學校博物館 所藏

21) 咸安 末山里 34號 出土品²⁸⁾(圖28)

주둥이가 넓고 꼬리에는 注出口가 있다. 등 위에 注入口가 있으나 파손되어 형태를 알 수 없고 동부에는 각부가 붙었던 흔적이 보인다. 車輪形土器와 함께 출토되었다.

22) 國立晉州博物館 所藏品²⁹⁾(圖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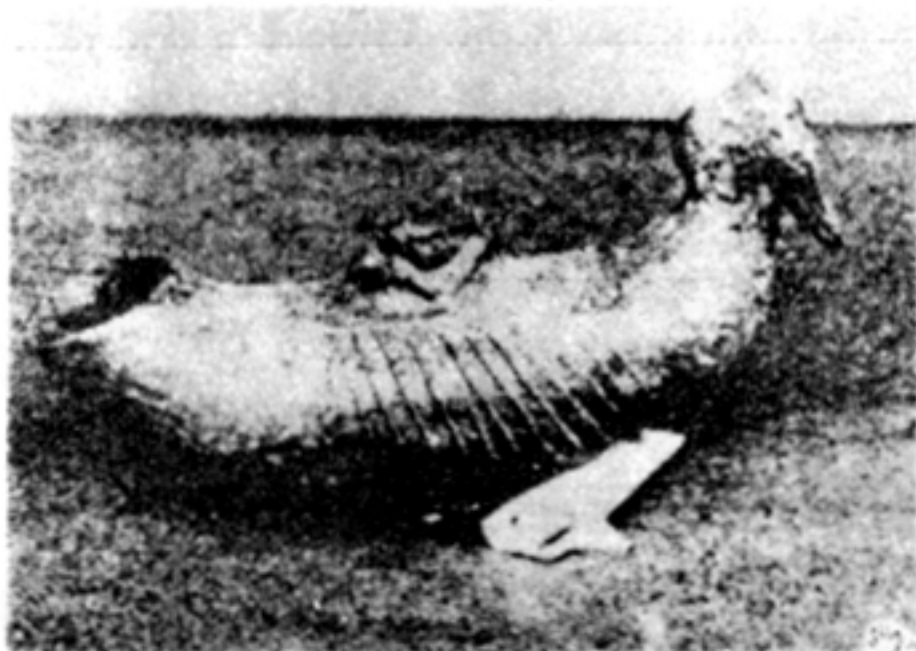
동체는 점토판을 접어 만들고 주입구와 주출구는 구분되지 않고 목 뒤에

26) 註22와 동일

27) 慶北大學校博物館, 『慶北大學校博物館圖錄』, 1988

28) 朝鮮總督府, 『大正六年 朝鮮古蹟調查報告』, 民族文化社, 1993

29) 國立晉州博物館, 『국립진주박물관』, 1984



<圖28> 咸安末山里 34號 出土



<圖29> 國立晉州博物館 所藏 高 17.1cm

서 꼬리 끝까지 길게 절개되어 있다. 동체 양쪽에는 침선으로 날개를 표시하고, 두부에는 둥근 원으로 눈과 귀를 나타내며 입은 약간 벌어진 모습이다. 陝川출토라고 전한다. 高 17.1cm, 幅 20.7cm

23) 金陵 三盛洞 出土品³⁰⁾(圖30)

거의 흡사한 조형토기 한쌍이 출토되었다. 주둥이 끝은 뾰족한 편이고 둥근 점토 중간에 점찍어 눈을 나타내고 있다. 경부와 동부 양쪽, 꼬리부분에는 장식이 각각 달리고, 동체 중간에는 2조의 돌대문이 있다. 움푹 패인 동체 상부의 杯形 주입구는 치켜올라간 꼬리부분의 주출구와 높이가 비슷하다. 高 15.2cm, 幅 19.5cm

30) 註27과 동일



<圖30> 金陵 三盛洞 出土 高 15.2cm

24) 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 所藏品³¹⁾(圖31)

頭部에는 퇴화된 깃과 인화문으로 표현된 눈이 있고, 동부에는 인화문, 돌대문, 침선문 등 다양한 장식이 부가되어 있다. 동체부에 방형의 구멍을 뚫어 주입구와 주출구를 나타내고, 각부에는 2단의 장방형투창이 있다. 高 24.8cm

25) 東亞大學校博物館 所藏品³²⁾(圖32)

頭部에는 점을 찍은 눈, 홈을 파서 표현한 코, 약간 벌린 입을 가진 세련된 형상의 것이다. 직립 구연의 주입구 중간에 돌대문이 있고, 꼬리부분에 원형으로 뚫린 주출구가 있으며 동부 표면에는 인화문이 시문되어 있다. 신라 토기 가운데 늦은 단계로 편년되는 고배 각부가 부착되어 사용시기 추정이 가능하며 소성도는 양호하다. 高 14.5cm



<圖31> 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 所藏
高 24.8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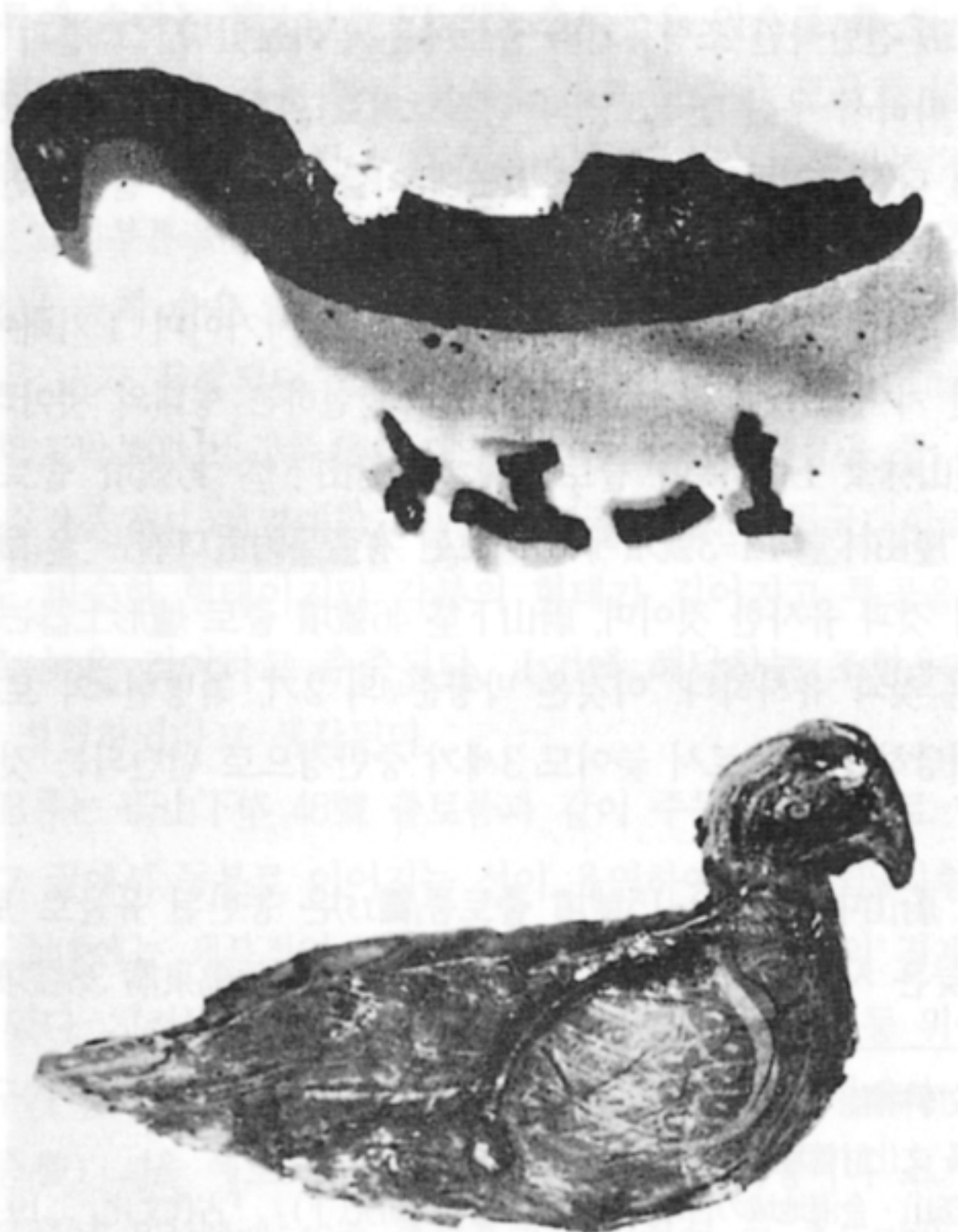
<圖32> 東亞大學校博物館 所藏
高 14.5cm

31)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1986

32) 東亞大學校博物館, 『博物館圖錄』, 1977



〈圖33〉 嶺南大學校博物館 所藏 高 21.5cm



〈圖34〉 天馬塚 出土

26) 嶺南大學校博物館 所藏品³³⁾(圖33)

직선적으로 뺀 두부와 긴 목은 인상적이며 동체에는 한줄의 돌대와 파상문이 시문되어 있다. 방형으로 뚫린 주입구와 주출구는 형식적이며, 역시 낮은 단계의 고배 각부가 부착되어 있다. 高 21.5cm

27) 天馬塚 出土品³⁴⁾(圖34)

칠기제로 鳥形杯가 16점 출토되었으며 杯의 저부에 원래 각부가 부착되었던 것도 있다.

2. 變遷過程(表2·3, 圖面1·2·3)

1) 시기

이상으로 전반적인 조형용기의 출토예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鳥形容器는 소성상태에 따라서 우선 연질토기와 경질토기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형태상 특징을 통해 다시 3기로 세분할 수 있는데 이를 구분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I기는 연질조형용기가 주류를 이루는 시기이며 I기내에서도 약간의 시기적인 차이를 엿볼 수 있다. 즉 처음 출현하는 형태의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慶山林堂 EI-3號墳 출토품(圖7)과 蔚山下垵 46號墳 출토품(圖4)이다. 동반유물은 慶山林堂 EI-3號墳에서 출토된 有蓋臺附直口壺는 金海禮安里 160號墳 출토의 것과 유사한 것이며, 蔚山下垵 46號墳 출토 爐形土器는 禮安里 74號墳 출토의 것과 유사하다. 이것은 박광춘³⁵⁾의 2기, 최병현³⁶⁾의 토광목곽묘단계 2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늦어도 3세기 중반경으로 편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蔚山中山里 ID-15號墳 출토품(圖15)은 동반된 유물로 보아 전자보다는 약간 늦은 시기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東萊福泉洞 38號墳(圖14) 출토

33) 嶺南大學校博物館, 『博物館圖錄』, 1982

34)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天馬塚』, 1974

35) 朴廣春, 「釜山·金海地域の古墳出土土器の編年的研究(下)」 『古代文化』, 1991(여기서 박광춘은 부산·김해지역의 고분출토 토기를 7기로 세분하고 각기의 양식의 연대폭을 70년으로 하여 I기(2세기대), II기(3세기전엽~3세기중엽), III기(3세기후엽~4세기전엽), IV기(4세기중엽~4세기후엽), V기(5세기전엽~5세기중엽), VI기(5세기후엽~6세기전엽), VII기(6세기중엽)로 설정하였다.)

36) 崔秉鉉, 『新羅古墳研究』, 一志社, 1992

품은 동반된 爐形土器가 蔚山中山里 ID-15號墳의 爐形土器보다는 늦은 단계의 것으로서 七山洞 32號墳에서 출토된 것과 유사하다. 이는 박광춘의 3기, 최병현의 적석목곽분·토광목곽분 공존기 1-1기에 해당하는 것이며 약 4세기 전 반경으로 편년될 수 있다. 연질조형용기 중 가장 늦은 단계의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대구대학교박물관 소장품(圖16·17)으로, 연질소성의 것은 4세기 중반경을 기점으로 점차 소멸되는 경향이다.

형태상으로 보면, I기에 해당하는 조형용기는 주둥이에서 목을 거쳐 동부로 이어지는 각도상의 차이가 주목되며, 이에 따라 4개의 유형(A·B·C·D류)으로 세분할 수 있다.(圖面1)

A류는 주둥이에서 동부로 이어지는 선이 수직에 가깝고, B류는 역S자형, C류는 예각, D류는 C류에 비해 각도가 더 좁은 예각을 이루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

즉 A류에 속하는 慶山林堂 EI-3號 출토품은 앞으로 쪽 뺀 주둥이는 점토를 도려내어 약간 입을 벌린 형상을 하고 뽀족한 도구로 눌러 찍은鼻孔은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주둥이에서 동부로 이어지는 선은 수직상에 가깝고, 꼬리부분을 약간 쳐들었지만 거의 수평에 가깝다. 깃이 ⅔정도 결실되었으나 높게 솟은 깃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두부 양옆에 타원형고리와 같은 귀가 부착되어 있다. 형태상 이와 유사한 것은 頭部만 잔존하는 계명대학교박물관 소장품(圖9), 대구봉무동 출토품(圖11)을 들 수 있다. 진주박물관 소장품(圖8), 계명대학교박물관 소장품(圖10), 동국대학교박물관 소장품(圖12)도 비슷한 형태이지만 각부의 형태가 길어지고 투공을 가지는 등 시기적으로 늦은 것이라고 추측된다. I기에 해당하는 조형용기중 A류가 가장 많이 성행하였다고 생각된다.

다음 B류는 蔚山下垵 46號 출토품과 같이 주둥이는 아래로 향하다 위로 반전하고 그 끝에서 동부로 이어지는 선이 유연하여 마치 역S자형을 하고 있는 것이다. 面像에는 세부적인 표현이 없고 귀는 頭部와 목의 경계가 되는 지점에 붙어 있다. 치켜든 꼬리부분에는 圓孔의 주출구가 있고 등 위에는 직립구연의 주입구가 있으며 각부는 짧은 무투창이다. 이와 같은 형태의 것은 호림미술관 소장품(圖5·6)을 예로 들 수 있다. 특히 圖5는 기형이나 크기, 세부적인 묘사수법 등에서 울산하대 46호 출토품과 흡사하여 그 출토지가 울산하대일 가능성이 있다. 한쌍을 이룬 호림미술관 소장품(圖6) 역시 형태적으로는 울산하대 46호 출토품과 동일하지만 전체 크기에 비해서 각부가長大化되는 경향이고 시기적으로는 약간 늦은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음 C류에 속하는 것은 蔚山中山里 ID-15號墳 출토품 한쌍으로 머리를 마주보고 있는 상태로 출토되었다. 그 중 한마리가 頭部 전면이 결실되고 각부에 삼각형 투공을 가진 것을 제외하면 거의 유사하다. 즉 주둥이 끝에서 목으로 이어지는 선이 예각으로 꺾이고 침선으로 그린 입과 눌러 찍은 코의 표현은 사실적이다. 두부 양옆에는 둥근 고리 모양의 귀가 부착되고 등에서 꼬리부분으로 연결되는 선은 비교적 수평에 가깝다. 頭部만 출토된 복천동 38호 출토품 역시 한쌍이며 깃의 앞부분은 결실되고 안면에는 침선으로 그린 입과 눌러 찍은 코가 있다. 주둥이 끝은 위로 향하고 동부로 이어지는 선은 울산 중산리의 것과 같은 예각이다. 이것과 유사한 형태의 것은 慶州 校洞 출토품이라고 전하는 경주박물관 소장품(圖13)이다. 이 경우 주둥이에서 동부로 이어지는 선이 예각인 것은 동일하지만 깃이 전자에 비해 낮아지고 장대화된 각부에 세장방형 투공이 있다. 시기적으로 전자보다는 신석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 D류는 대구대학교박물관 소장품(圖16·17)과 같이 전대와는 특징상 많은 차이가 있다. 수직으로 쳐든 긴목과 두부는 예각을 이루지만 울산중산리 출토품보다 더 꺾어진 상태이며 다음 단계의 경질조형용기와 오히려 유사한 각도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전대에 표현되지 않았던 눈이 점을 찍거나 점토를 붙여 나타내고 있다. 크기는 전대에 비해 다소 작아지고 높게 솟은 깃이 축약되거나, 鋸齒狀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상과 같이 I기에 해당하는 조형용기는 모두 연질소성으로 주둥이에서 동부로 이어지는 꺾임의 각도상 변화가 주목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頭部에는 앞으로 길게 뻗은 주둥이, 이마에서 목 뒤까지 이어지는 높게 솟은 깃, 타원형에 가까운 점토판에 圓孔이 뚫린 귀가 두부 양쪽에 있다. 顔面에는 눈, 코, 입의 세부적인 표현이 없는 것도 있지만 침선으로 그어 입과 코를 표현한 것이 대부분이며 간혹 눈을 표현한 것도 있다. 이와같은 제요소로 보아 이제까지 주로 鴨形土器라고 불리워졌던 용어는 그렇지 않은 형상도 있어 앞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것 같다. 또 동체에는 背部에 거의 직립하는 구연을 가진 注入口와 꼬리부분에 둥글게 잘린 注出口가 있다. 각부는 무투창, 투공이며 전체적인 기면조정은 깎아내기, 마연하기 등 조각적인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높이는 30~40cm이고, 3세기 중반에서 4세기 중반경의 시기라고 생각된다.

다음 II기는 경질조형용기가 등장하기 시작하고, 연질토기는 제작수법이 경질과 동일한 시기이다.

출토지가 명확한 東萊福泉洞 86號墳 출토품(圖19)의 경우 여기에 동반된 유물 가운데 短頸壺가 金海七山洞 11號墳 출토의 것과 유사하며, 爐形土器는 七山洞 20號墳 출토의 것과 유사한 형식의 것이다. 이는 박광춘의 3·4기, 최병현의 적석목곽분·토광목곽분 공존기 1-1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4세기 전반에서 중반경으로 편년가능한 것이다.

형태상 동래복천동 86호 출토품은 경질토기로서 점토를 손끝으로 눌러 세워 흔적만 표시하는 매우 퇴화된 깃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짧은 주둥이는 입을 벌린 상태이고, 찢어서 새긴 두눈이 있으며 두부 양쪽의 귀는 퇴화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풍만한 몸통에 비해 두부는 작고 목이 짧으며 고개를 숙인 형태이다. 다른 조형토기가 원통형 각부가 부착된데 비해 별도로 제작된 짧은 다리 4개와 동체에는 종방향으로 침선문을 넣어 깃털을 표현하고 있다. 이와같은 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金海大成洞周邊Ⅱ地區24號 출토품(圖18)과 小倉 수집품(圖3), 釜山市立博物館 소장품(圖20), 湖林博物館 소장품(圖21)을 들 수 있다.

그 중 김해대성동 출토품은 회황색 연질토기이며 깃의 표현이 매우 소략해지고 두부 양쪽의 귀도 퇴화된 것이다. 전체적으로 두부가 작아지고 동체는 풍만하며 주입구는 다소 커지는 경향이며, 연질이지만 전대의 제작수법과는 달리 경질의 특징을 따르고 있다. 부산시립박물관 소장품도 유사한 형태의 것인데 꼬리 부분을 점토로 눌러 꼬리깃을 표현하고 몸통 좌측에 1.4cm의 원형구멍을 뚫어 주출구로 사용하고 있다. 호림미술관 소장품은 한쌍으로 깃과 귀는 완전히 퇴화되고 정수리부분이 약간 깎아내린 듯한 인상을 주며, 동체에는 침선으로 된 각종 문양이 시문되어 있다. 두부보다 높게 강조된 주입구는 외반된 형태이고 치켜든 꼬리에 주출구가 있다.

앞에서 언급한 小倉 수집품의 경우 역시 Ⅱ기에 속하는 것이라 생각되고, 두부의 형태가 말이라는 점은 Ⅱ기의 새로운 요소이며 획기적인 변화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즉 Ⅱ기에는 동체 성형은 전대의 연질토기와는 달리 대부분을 먼저 제작한 뒤 양쪽에서 구연부를 눌러 만드는 등 경질소성의 제작방식과 동일하다. 전체적으로 크기가 소형화되며, 특히 깃과 귀의 표현은 간략화되거나 퇴화되고 頭部가 작아지는 반면 동체는 통통하게 살찐 형태이다. 注入口와 注出口는 Ⅰ기에 비해 커지며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동체에는 돌대문과 침선문이 보인다. 또한 외형상 이 시기에는 말 또는 새를 사실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한다. 무투창

각부가 대부분이며 높이는 10~20cm이고 약 4세기 중반에서 4세기 후반경에 유행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Ⅲ기는 경질조형용기가 주류를 이루는 시기로서, 투창을 가진 각부가 출현한다. 1단투창의 것이 먼저이고 2단투창의 것이 나중에 나타나서 2종류의 것이 공존하는 시기라고 생각된다.

梁山法基里 출토품(圖1)과 尙州靑里C地區 6號墳 출토품(圖2)은 Ⅲ기에 해당하는 조형용기중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이라고 추정된다. 동반된 臺附長頸壺와 高杯등을 참고한다면 5세기 초반경에는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두 점은 頭部가 馬頭로 추정되는 것으로 앞서 Ⅱ기의 小倉 수집품과 같은 맥락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동일한 1단투창 각부를 가진 조형용기로서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圖22), 小倉 수집품(圖23), 호암미술관 소장품(圖24·25)을 들 수 있다. 국립박물관 소장품이나 호암미술관 소장품은 출토지를 알 수 없으나 형태상 매우 유사해서 각각 한쌍씩 출토된 느낌을 갖게 한다. 창녕 출토라고 전하는 小倉 수집품은 고개를 뒤로 돌리고 입에는 생선을 물고 있으며, 꼬리부분에 圓形注口 하나만 가지는 등 특이한 조형성을 엿볼 수 있다. 2단투창 각부를 가진 조형용기는 호림미술관 소장품(圖26), 경북대학교박물관 소장품(圖27), 함안 말산리 34호 출토품(圖28), 국립진주박물관 소장품(圖29), 금릉 삼성동 출토품(圖30),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소장품(圖31)등이 있다. 그 중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소장품은 각부가 味鄒王陵地區第5地域 15號의 고배 각부와 유사하여 그 사용시기가 5세기 전반경에는 출현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다른 이단투창 각부를 가진 조형용기도 5세기 전반에서 중반경에는 1단투창 각부의 조형용기와 함께 사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각부 형태로 보아 시기적으로 가장 늦은 단계라고 판단되는 조형용기는 동아대학교박물관 소장품(圖32)과 영남대학교박물관 소장품(圖33)이다. 동아대학교박물관 소장품은 각부의 형태가 天馬塚 출토의 고배 각부와 유사하며 이는 5세기 후반경으로 편년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가장 마지막 단계의 조형용기는 5세기 후반경을 전후한 시기에 소멸된 것으로 추정된다.

즉 Ⅲ기는 Ⅱ기와 같이 동체의 성형은 대부분을 먼저 만든 후 양쪽에서 접어 조형용기를 만든 형태이지만, 퇴화된 것과 귀는 거의 없어지고 말이나 오리 등과 같은 사실적인 형태를 가진다. 그리고 동체에는 圓筒形, 杯形, 長方形의 구멍이 뚫린 注入口와 圓形, 長方形의 注出口, 또는 주입구와 주출구의 구

분없이 하나의 注口만을 가진 것 등 매우 다양한 형태가 보인다. 또 점토판을 덧대어 날개를 표현하고 돌대문, 침선문이 시문된다.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품이나 금릉 삼성동 출토품에는 영락이 부착되는 등 장식적 요소가 가미되고, 小倉수집품이나 경북대학교박물관 소장품처럼 자유로운 조형성이 강조된 것도 있다. 그리고 각부의 형태는 일단 혹은 이단투창 가지고 크기는 높이 20cm 전후의 것이 대부분이며, 시기적으로는 5세기 초반경에서 5세기 후반경까지 사용된 것으로 추정한다.

지금까지 소개한 조형용기의 변천과정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즉 I기는 頭部에 큰 깃과 귀가 반드시 표현되고, 안면부에 코와 입은 있지만 눈의 표현은 드문 것이 특징이다. II기·III기가 되면 깃과 귀가 소략화되거나 없어지지만 눈은 반드시 표현된다. 각부는 무투창에서 투창으로, 소성상태는 연질에서 경질로 바뀌어지며, 형태는 사실적이면서 다양해진다. 이는 조형용기가 경질화되면서 소형화·소략화·사실화·비정형화라는 큰 흐름으로 변화함을 파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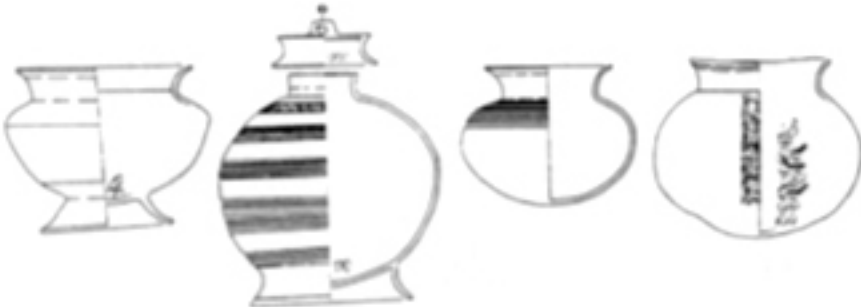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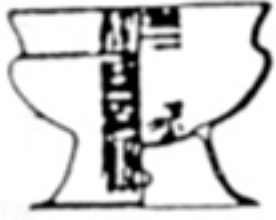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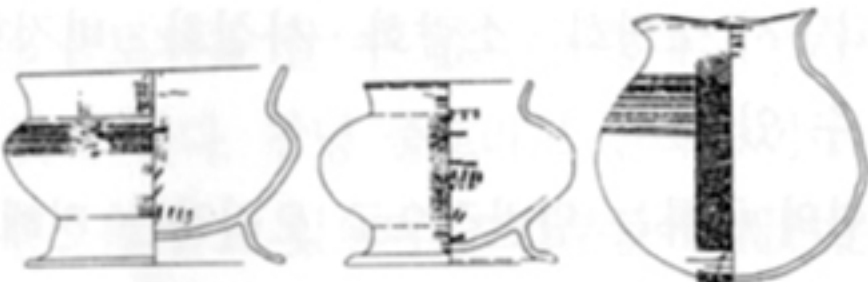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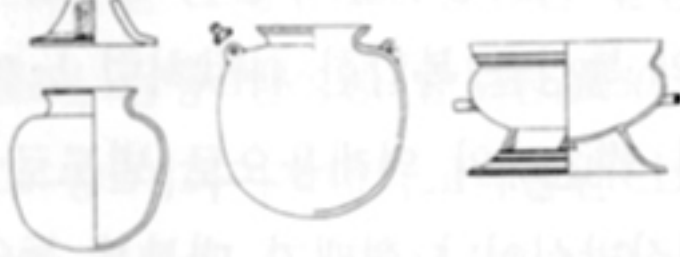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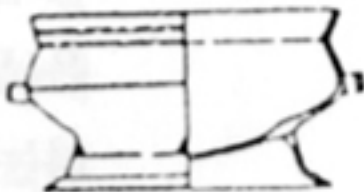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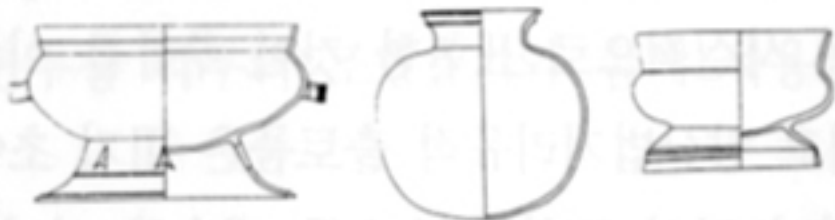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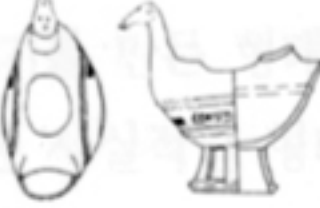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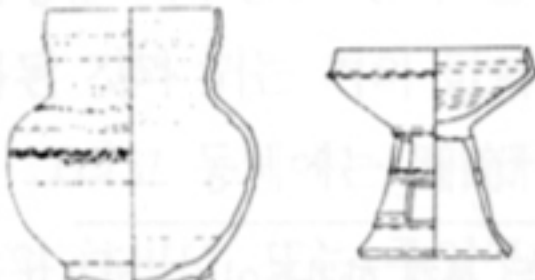
조형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오리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지만 엄밀히 살펴보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우선 I기에 해당하는 조형용기의 경우 동체는 새의 형태를 취하지만 정수리 부분의 큰 깃, 양쪽으로 튀어나온 귀³⁷⁾ 등의 조형성은 말과 새의 특징을 복합한 神獸처럼 느껴져서 실존하는 새의 일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葬送時의 의례용으로 별도로 고안한 儀器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기본적인 제작방식이나 형태가 대부분 동일함을 엿볼 수 있다. II, III기에 해당하는 것은 동체는 역시 鳥形이지만 頭部の 형태가 다양해지고 실제 새의 모습과 같이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이 주류를 이룬다.

그리고 양산법기리유적 출토품은 III기 초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I·II기에서 나타난 말의 조형적 요소를 계승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즉 II기부터 그 형태가 말을 계승한 것과 새를 계승한 분파가 점차 나뉘어 III기에 이르면 확실한 구분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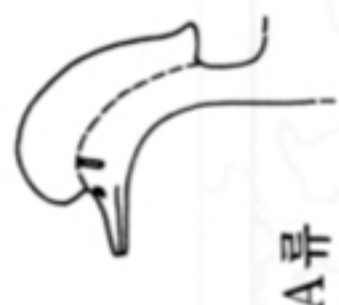
전체적인 사용시기는 출토지가 정확한 것을 중심으로 추정할 때 대략 3세기 중반에 발생하여 성행하고 4세기 중반에 전환기를 거치며 5세기대에 경질토기로 발달하여 그 명맥이 유지되다가 쇠퇴하는 것으로 보인다.

37) 이것에 대해서는 종래 학자들이 '눈'이라고 설명하였으나, 필자는 圖16·17를 근거로 '귀'라고 추정한다.

<表2> 鳥形容容器와 同伴遺物 編年表

구분 시기	조형용기	동반유물	비교자료
I 기	 慶山林堂EI-3號墳		 禮安里160號
	 蔚山下堡46號墳		 禮安里74號
	 蔚山中山里ID-15號墳		
	 東萊福泉洞38號墳		 七山洞32號
II 기	 東萊福泉洞86號墳		 七山洞11號 七山洞20號
III 기	 尙州靑里C地區6號墳		 禮安里36號 福泉洞10·11號
	 梁山法基里古墳		 福泉洞10·11號

<圖面1> 軟質鳥形容器 變遷過程圖

시기 분류		3세기중반	4세기중반
第 I 期	A류	 ①	 ⑥
	B류	 ⑦	 ⑨
	C류	 ⑩	 ⑬
	D류	 ⑭	 ⑭

※ ① 慶山林堂E1-3號 ② 大邱鳳舞洞 ③④ 啓明大學校博物館藏 ⑤ 東國大學校博物館藏 ⑥ 國立晉州博物館藏 ⑦ 蔚山下岱46號
⑧⑨ 湖林美術館藏 ⑩⑪ 蔚山中山里ID-15號 ⑫ 東萊福泉洞38號 ⑬ 國立慶州博物館藏 ⑭ 大邱大學校博物館藏

<圖面2> 硬質鳥形容器 變遷過程圖

시기 분류	4세기중반 → 5세기후반
第 II 期	 ①  ②  ③  ④  ⑤
第 III 期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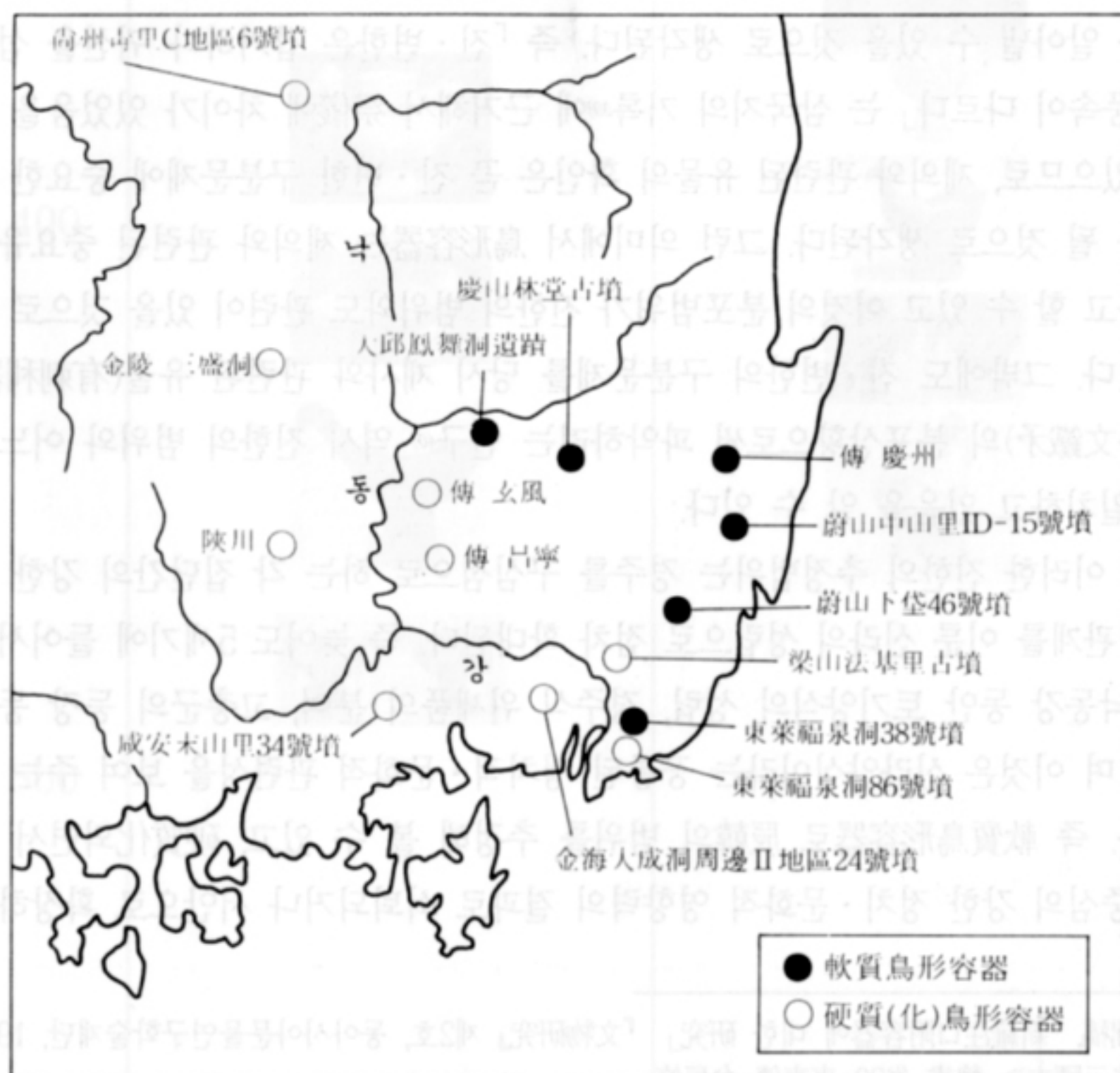
※ ① 東萊福泉洞86號 ② 釜山市立博物館藏 ③ 金海大成洞周邊Ⅱ地區24號 ④ 湖林博物館藏 ⑤ 小倉菟集 ⑥ 尙州青里C地區6號 ⑦ 梁山法基里 ⑧ 國立中央博物館藏
⑨ 湖巖美術館藏 ⑩ 湖林美術館藏 ⑪ 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藏 ⑫ 金陵三盛洞 ⑬ 東亞大學校博物館藏 ⑭ 嶺南大學校博物館藏

2) 분포

지금까지 살펴본 鳥形容器의 시기적인 변천과정을 중심으로 분포상태와 관련하여 잠시 언급하고자 한다. 분포상을 알기 위한 첫단계는 역시 명확한 출토상황이겠지만, 출토지 미상의 자료들도 있어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나 여기서는 현재까지 발굴조사되어 확인된 출토품과 傳世된 자료를 중심으로 그 분포상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軟質鳥形容器는 蔚山下垵 46號墳, 蔚山中山里 ID-15號墳, 慶山林堂 EI-3號墳, 大邱鳳舞洞遺蹟, 東萊福泉洞 38號墳, 傳 慶州校洞 出土品등이 있고, 硬質鳥形容器는 金海大成洞周邊Ⅱ地區 24號墳, 東萊福泉洞 86號墳, 尙州靑里 C地區6號墳, 咸安末山里 34號墳, 梁山法基里古墳, 金陵三盛洞遺蹟, 傳 陝川, 傳 玄風, 傳 昌寧 出土品등이 있다.

이 경우 연질조형용기는 경산, 대구, 경주, 울산, 동래 등지의 洛東江 東岸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경질조형용기는 동래, 양산, 김해, 합천, 창녕, 현풍,



<圖面3> 鳥形容器 分布圖

함안, 상주, 금릉 등 洛東江岸 일부지역과 洛東江 西岸에 분포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포상태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대략 3세기중반에 조형용기가 洛東江 東岸지역을 중심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다가 경질화되면서 洛東江 西岸 지역으로 그 분포지역을 확장시켜가는 인상을 준다. 즉 낙동강 동안지역에서 먼저 유행한 조형용기가 시기적인 변천에 따라 洛東江 西岸과 東岸내에서도 낙동강과 가까운 지역에서 출토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조형용기의 분포지역 확장과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기능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 注口附容器가 경주지방을 중심으로 洛東江 東岸지역에 한정되어 나타나고 있다.³⁸⁾ 이와같은 주구부용기의 출현은 연질조형용기의 쇠퇴와 경질조형용기의 분포지역 변화에 관련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그것은 조형용기를 사용한 집단이 정치적인 영역확장이나 새로운 문화를 수용하는 변혁이 있었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다.

먼저 연질조형용기가 낙동강동안에 산재하는 것은 당시 진한의 분포권을 연상케하고 신라의 성립이전 진·변한의 구분문제를 생각케한다. 이러한 진·변한의 구분문제는 신라의 근원적인 문제로서 현재로서는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당시 지역성이 뚜렷한 유물을 중심으로 찾아보면 어느정도 진한의 범위를 알아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진·변한은 잡거하나 귀신을 섬기는 풍속이 다르다」는 삼국지의 기록³⁹⁾에 근거해서 祭儀에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제의와 관련된 유물의 확인은 곧 진·변한 구분문제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 의미에서 鳥形容器는 제의와 관련된 중요유물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의 분포범위가 진한의 범위와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밖에도 진·변한의 구분문제를 당시 제사와 관련된 유물(有刺利器, 蕨手文鐵矛)의 분포상황으로써 파악하려는 연구⁴⁰⁾ 역시 진한의 범위와 어느정도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진한의 추정범위는 경주를 구심점으로 하는 각 집단간의 강한 정치적관계를 이룬 신라의 성립으로 점차 확대된다. 즉 늦어도 5세기에 들어서서는 낙동강 동안 토기양식의 성립, 경주식 위세품의 분여, 고총군의 등장 등이 보이며 이것은 신라양식이라는 공통된 정치적·문화적 관련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즉 軟質鳥形容器로 辰韓의 범위를 추정해 볼 수 있고, 硬質化되면서 경주 중심의 강한 정치·문화적 영향력의 결과로 쇠퇴되거나 서안으로 확장하는

38) 拙稿, 「新羅注口附容器에 대한 研究」 『文物研究』 제2호, 동아시아문화연구학술재단, 1998

39) 《三國志》 魏書 卷30 東夷傳 弁辰條

弁辰與辰韓雜居 亦有城郭 衣服居處與辰韓同 言語法俗相似 祠祭鬼神有異 施竈皆在戶西

40) 金榮珉, 「嶺南地域 三韓後期文化의 特徵과 地域性」, 釜山大學校大學院碩士學位論文, 1996

<表3> 鳥形容器의 變遷過程

時 期	洛 東 江 西 岸	洛 東 江 東 岸
200		
300		
		
		
400		
		
		
		
500		

양상이다. 이는 신라 영역의 확대에 볼 수도 있으나, 새로운 세력의 출현에 따른 재지세력의 이동으로도 추측해 볼 수 있다. 조형용기의 중심지가 낙동강 동안에서 낙동강 주변과 그 서안으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馬形이나 龜形과 같은 동물형용기도 함께 나타나는 등 동안지역과는 다른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4. 造形的 意義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鳥形容器는 注入口와 注出口를 가진 점에서 액체(술, 피, 성수)를 담아 따르는 용도라고 추정해보았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러한 기능적인 측면 외에 형태적인 특징에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鳥形容器는 소성상태에서 軟質과 硬質로 구분되고 이에 따른 형태적인 차이도 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새라는 조형적 요소는 인정되고 있으므로 고대인의 새에 대한 특별한 신앙과 사상을 먼저 언급치 않을 수 없다.

고대사회에는 하늘과 땅 사이를 자유롭게 왕래하는 새를 靈物로 여겼다. 새는 신성과 예시, 위엄과 권력, 내세관 반영 등을 상징한다. 고구려 시조 동명왕 신화⁴¹⁾나 신라 탈해왕 신화⁴²⁾에 등장하는 새는 신성과 예시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고, 위엄과 권력의 상징으로는 관모에 깃털을 꽂는 鳥羽冠의 풍습을 들 수 있다.⁴³⁾ 새 깃의 장식은 고구려에서는 용맹을 상징했는데 이는 아시아 북방 민족간에 널리 유행하던 풍속이었다. 신라에서는 금동과 금, 은 등 귀금속으로 새깃을 만들어 장식하였는데 여기에 나무형상도 함께 표현하여 위엄과 권력을 상징하였다. 또한 새는 육신과 영혼을 하늘로 인도하는 안내자로 믿었다.⁴⁴⁾

새가 상징하는 이러한 요소 중 鳥形容器가 의미하는 바는 내세관의 반영이라고 생각된다. 신라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생시와 같이 삶을 계속 누리고 산다는 繼世思想을 믿었다. 그래서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는 재생·부활을 위한 장송의례가 필요했고, 부활된 이들 영혼을 저승으로 인도하고 운반할 도구와 저승에서의 안락한 생활을 위한 각종 물품들을 무덤의 부장품으로 넣었다. 이

41) 《三國史記》卷13, 高句麗本紀1, 始祖 東明聖王

42) 《三國史記》卷1, 新羅本紀1, 脫解尼師今

43) 《周書》卷49 列傳第41 高句麗傳 “其有官品者, 又插二鳥羽於其上, 以顯異之”

《北史》卷94 列傳 第82 高句麗傳 “人皆頭簪折風, 形如弁, 士人加插 二鳥羽”

《三國遺事》卷4 歸竺諸師條

天竺人呼海東云 矩矩吒 訖說羅 矩矩吒 言雞也 訖說羅言貴也 彼土相傳云 其國敬雞神 而取尊 故戴翎羽而表飾也

44) 《三國志》卷30 魏書30 弁辰傳 “嫁娶禮俗, 男女有別, 以大鳥羽塗死, 其意欲使死者飛揚”

러한 고대인의 내세관에서 영혼을 운반할 수 있는 동물로는 각 공간을 서로 넘나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여야만 한다.⁴⁵⁾ 따라서 새는 땅과 하늘 사이를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영혼을 하늘로 인도하는 안내자로 여겨졌고 조형용기 또한 이러한 내세관의 반영물로 볼 수 있다.

연질조형용기는 일반적으로 새가 가진 내세관에 또다른 사상이 내재한다고 추정되며, 이러한 추측은 그 형태의 특이함에 있다. 즉 그 형태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오리라고 보는 견해가 많으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체는 새의 형태이지만 頭部의 높게 솟은 깃과 둥근 고리처럼 양쪽에 붙은 귀 등 특징의 새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요소가 있다. 따라서 이것은 실존했던 동물이라기 보다는 복합적인 요소들이 합쳐져 고대인들에게 신성시되는 상상적인 동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고대인의 사상은 건국신화와도 무관하지 않으며 특히 박혁거세는 始祖로서 死後 남해왕대에 始祖廟가 설치되어 신라가 멸망할때까지 숭배되었다.⁴⁶⁾ 물론 소지왕대에 神宮이 설치되어⁴⁷⁾ 시조묘에 대한 제사가 신궁에 대한 제사로 옮겨간 듯 하지만 시조묘가 없어졌다는 기록은 없다.

즉 혁거세의 신화⁴⁸⁾에서 혁거세의 등장을 알리는 말은 천상과 지상을 연결하는 메신저의 역할로 天馬를 상징하고, 신화의 현장에 나오는 우물은 閼英의 등장⁴⁹⁾에도 나와 우리 고대사회의 井泉신앙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혁거세

45) 千鎮基, 「신라 토우의 민속학적 연구」 『新羅土偶』, 國立慶州博物館, 1997

46) 《三國史記》卷1 新羅本紀1 南解次次雄

三年春正月 立始祖廟

《三國史記》卷32 雜志1 祭祀

按新羅宗廟之制 第二代南解王三年春 始立始祖赫居世廟 四時祭之 以親妹阿老主祭

47) 《三國史記》卷3 新羅本紀3 炤知麻立干

九年春二月 置神宮於奈乙 奈乙始祖初生之處也 三月始置四方郵驛命所司 修理官道 秋七月 葺月城 冬十月雷

48) 《三國史記》卷1, 新羅本紀1 始祖 赫居世居西干

始祖姓朴氏 諱赫居世 前漢孝宣帝五鳳元年甲子 四月丙辰(一曰正月十五日) 卽位 號居西干時年十三 國號徐那伐 先是 朝鮮遺民 分居山谷之間爲六村 一曰閼川楊山村 二曰突山高墟村 三曰嵒山珍支村(或云干珍村) 四曰茂山大樹村 五曰金山加利村 六曰明活山高耶村 是爲辰韓六部 高墟村長蘇伐公 望楊山麓 蘿井傍林間 有馬跪而嘶 則往觀之 忽不見馬 只有大卵 剖之 有嬰兒出焉 則 收而養之 及年十餘歲 岐嶷然夙成 六部人 以其生神異 推尊之 至是 立爲君焉 辰人謂瓠爲朴 以初大卵如瓠故 以朴爲姓 居西干 辰言王(或云呼貴人之稱)

49) 《三國遺事》卷1, 紀異2, 新羅始祖 赫居世王

時人爭賀曰 今天子已降 宜覓有德女君配之 是日 沙梁里閼英井(一作娥利英井)邊 有鷄龍現而左脇誕生童女(一云龍現死 而剖其腹得之) 姿容殊麗 然而唇似鷄嘴 壯浴於月城北川 其嘴撥落 因名其川曰撥川 營宮室於南山西麓(今昌林寺) 奉養二聖兒 男以卵生 卵如瓠 鄉人以瓠爲朴 故

는 알에서 태어나므로 卵生神話의 요소도 가지는 등 한편의 신화에는 여러 복합적인 상징물이 등장한다. 이러한 신화의 해석에 따라 다소 비약적일지 모르지만, 연질조형용기의 頭部의 깃은 馬의 갈기를, 주둥이와 胴體는 鳥를, 注入口는 井을 상징한다고 추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신화는 당시 고대인의 정신세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며, 그 부산물인 조형용기 또한 신화 속의 사상들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연질조형용기와 같은 상상적이고 복합적인 동물의 요소는 문헌의 기록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동명왕 신화⁵⁰⁾에서 卒本川에 도읍한 주몽은 先住해 있던 비류국 송양과 건국의 선후를 다투던 중 呪言으로 비류국의 왕도에 7일간 홍수를 내려 송양을 굴복시킨다. 이때 왕은 鴨馬를 타고 갈대줄로 강을 질러 백성이 그줄을 붙들어 살게 한다. 여기에 보이는 鴨馬는 오리처럼 생긴 말이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신령한 능력자인 주몽이 오리를 말처럼 이용했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어쨌든 신화 속에 나오는 鴨馬는 복합적이고 상상적인 동물로서 홍수라는 대재앙 속에서 자신과 백성이 살아날 수 있는 구원자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주몽이 타고 굴로 들어가 땅속을 통하여 조천석으로 나아가 승천했다는 기린말⁵¹⁾ 역시 고대인의 상상적이고 복합적인 동물을 신성시하는 풍습을 엿볼 수 있다.⁵²⁾

따라서 연질조형용기 역시 고대인의 숭배와 신성의 대상으로 복합적·상상적인 존재라고 생각된다. 그 뒤 조형용기가 경질화되면서 형태적으로 이전에 비해 크기가 작아지고, 복합적이고 상상적인 요소들이 사실적으로 바뀐다. 그래서 오리나 닭 등 구체적인 조류의 형상을 취하거나, 법기리출토품과 같은 馬頭를 가진 것도 나타나게 된다. 즉 馬頭를 취한 법기리출토품은 연질조형용기에서 보인 복합적인 요소가 세분화되어 좀더 구체화된 것이며, 한편으로는 馬形容器의 祖型으로도 감히 생각해 보고 싶다.

이와같이 조형용기가 경질화되면서 나타나는 이러한 형태적 변화는 기본

因姓朴 女以所出井名名之 二聖年至十三歲 以五鳳元年甲子 男立爲王 仍以女爲后 國號徐羅伐 又徐伐(今俗訓京字云徐伐 以此故也)

50) 韓國文化象徵辭典編纂委員會, 『韓國文化상징사전』 2, 東亞出版社, 1995

《東國李相國集》 卷3 東明王篇

…王以葦索橫流 乘鴨馬…

51) 태평성대에 나타난다는 靈獸로서 쇠꼬리에 말발굽, 외뿔에 오색의 털빛을 가지며 수컷을 麒, 암컷을 麟이라고 한다.

52) 《新增 東國輿地勝覽》 卷51, 平壤府古蹟

…東明王養麒麟馬于此後人立石誌之世傳王乘麒麟馬入此窟從地中出朝天石升天其馬跡至今在石上…

적으로 내세관 반영이라는 의미는 동일하지만, 연질조형용기가 가졌던 사상이나 의미는 점차 쇠퇴되었음을 말해주는 듯하다.

5. 맺음말

지금까지 新羅 鳥形容器의 전반적인 전개양상을 통해서 梁山法基里遺蹟 출토 鳥形容器의 특징과 의미를 알아보았다. 이 유물은 연질토기에서 경질토기로 변화하는 조형용기의 변천과정을 포착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자료임에 틀림 없다. 즉 馬頭가 특징적인 이 조형용기는 전대의 연질조형용기와 이후의 경질조형용기 사이의 造形的인 격차를 다소나마 해결해주는 실마리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나라 조형용기의 전반적인 특징을 요약하여 맺음말에 대신코자 한다.

먼저 시기적인 변천과정은 鳥形容器를 3기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었다. 즉 조형용기의 I기는 軟質土器가 주류를 이루는 시기로서 그 사용시기는 3세기 중반경에 시작하여 다음기까지 사용되며, II기는 연질·경질토기가 혼용되는 시기로서 4세기 중반경에 시작하여 다음기에 이른다. 마지막 III기는 경질토기가 주류를 이루는 시기로서 5세기 초반에 시작하여 후반경까지 사용되며, 조형용기는 대부분 이 시기의 마지막 단계에 소멸된다.

다음 형태적으로도 I기의 조형용기는 胴體는 새이지만 頭部의 세부적인 표현은 실존하는 새라기보다 말과 새를 복합적으로 표현한 신화적이고 상상적인 동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II·III기가 되면 상상적인 깃과 귀가 간략화되거나 없어지고 대신 造形이 사실적인 것으로 바뀌어감을 알 수 있다. 또한 분포상으로도 I기의 조형용기는 洛東江 東岸지역에 한정되어 출토되지만, II·III기가 되면 洛東江 東·西 兩岸지역으로 확대되어 분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같은 조형용기의 사용시기와 분포상의 특징은 신라 사회의 정치적·문화적인 배경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즉 鳥形容器의 낙동강 서안지역으로의 확대는 곧 경주를 중심으로 한 낙동강 동안지역에 새로운 세력의 등장을 의미하고, 그것으로 인한 재지세력의 이동 또는 신라 정치영역의 확대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5세기 말경의 조형용기의 쇠퇴는 지증왕이 순장을 금함⁵³⁾에 따른 고분의 薄葬풍습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조형용기의 용도는 액체를 담아 따르는데 사용하는 기능을 가

53) 《三國史記》卷4, 新羅本紀4, 智證麻立干
三年春三月. 下令禁旬葬

진 것으로서 葬送 祭儀에 술 또는 피를 담았다고 추정된다. 그리고 조형용기가 새나 말의 형체를 造形化시킨 것은 신라인의 내세관과 관련되어, 死者의 영혼을 저승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상징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新羅의 鳥形容器는 우선 기형과 용도면에서 당시의 원시종교 사상과 장송의례를 이해하는 자료가 된다는 문화적인 의의를 찾아 볼 수 있다. 그리고 사용시기와 분포지역에서 삼한시대의 진한에서 삼국시대의 신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정치적·문화적인 현상을 확인시켜 주는 좋은 자료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參考文獻

I. 史書

舊唐書, 南史, 東國李相國集, 北史, 新增 東國輿地勝覽, 三國志, 三國史記, 三國遺事, 隋書, 梁書, 魏書, 周書, 後漢書

II. 國內

1. 報告書 및 圖錄

慶北大學校博物館, 『慶北大學校博物館圖錄』, 1988

_____, 『原三國時代文物展』, 1990

國民大學校博物館, 『博物館圖錄』, 1986

國立中央博物館, 『韓國 古代의 土器』, 1997

國立慶州博物館, 『菊隱李養璿蒐集文化財』, 1987

_____, 『新羅土偶』, 1997

_____, 『신라인의 무덤』, 1996

국립대구박물관, 『국립대구박물관』, 1996

國立晉州博物館, 『국립진주박물관』, 1984

金海市, 『金海의 古墳文化』, 1998

大邱大學校博物館, 『大邱大學校博物館圖錄』, 1991

_____, 『朴物館圖錄』, 1977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天馬塚』, 1974

부산광역시립복천박물관, 『복천동고분군이야기』, 1998

부산대학교박물관, 『선사와 고대의 문화』, 1996

嶺南大學校博物館, 『博物館圖錄』, 1982

溫陽民俗博物館, 『金奉一所藏文化財圖錄』, 1992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1986

鄭永和, 金龍星, 具滋奉, 張容碩, 『慶北 林堂地域 古墳群Ⅱ』, 嶺南大學校博物館 韓國土地開發公社 慶北支社

秦弘燮, 『韓國美術全集』 3 土器 土偶 瓦塼, 同和出版公社, 1974

韓國文化財保護財團, 『尙州 靑里遺蹟(VII)』, 1998

韓炳三, 『韓國美術全集』 2 古墳美術, 同和出版公社, 1975

尹瑞石,『韓國の食文化史』,メドス出版,1995

李殷昌,「新羅・伽倻の陶土工藝の歴史と技術」,『韓國のやきもの 1 新羅』,淡交社,1977

秋山裕一,『日本酒』,岩波新書,1997

朝鮮總督府,『大正六年 朝鮮古蹟調査報告』,民族文化社,1993